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수 영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 수록된
악기연주법 분석

202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하 엘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 수록된
악기연주법 분석

배수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하 엘


인 준 서

임하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김 은 주 

심사위원 _____ 배 수 영 

심사위원 _____ 임 인 경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악기 연주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도법이 교과서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교사들이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에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10종 음악 교과서의 기악 영역 중 가장 많이 수록된 10개의 악기의 지도법을 분석하여 고찰해보았다.

교과서 분석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주)금성출판사, 다락원, 미래엔, (주)박영사,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 등 10종이다. 먼저, 교과서에 수록된 악기를 서양악기와 국악기로 구분하고 악기 종류, 악기 배열 순서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악기 연주법을 양악기, 국악기, 디지털 매체로 분류하고, 연주법, 연주 자세, 제재곡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서양악기 중 가장 많이 제시된 악기는 기타였고, 국악기는 소금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금성출판사에서는 서양악기 중에서 가장 적은 3종의 악기, 즉, 건반악기, 기타, 우쿨렐레만 제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리코더, 오카리나, 드럼, 쟈즈, 카혼 등 서양악기가 더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주)금성출판사에서는 국악기 중 3종의 악기, 즉, 소금, 산조 가야금, 사물놀이만이 제시되었는데, 다른 국악기인 장구, 단소 등 더 다양한 악기가 수록될 필요가 있었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를 충분히 경험하고 학습하여 음악적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악기의 배열 순서의 측면에서 서양악기를 먼저 배열하고 이어서 국악기를 배열한 출판사는 다락원, (주)박영사,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와이비엠,

지학사, 천재교과서였다. 반면에, 국악기를 먼저 배열하고 이어서 서양악기를 배열한 출판사는 (주)금성출판사와 미래엔이었다. 그리고 서양악기와 국악기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열한 출판사는 (주)음악과생활이었다. 악기가 발생하는 소리의 원리에 따른 분류, 즉, 몸 울림 악기, 막 울림 악기, 전자 울림 악기, 현 울림 악기, 관 울림 악기, 그리고 멀티미디어 음악 분류에 따라서도 출판사별로 배열의 순서가 달랐다.

셋째, 대부분 교과서가 전체적으로 연주 자세와 연주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게 제시되거나 사진으로만 제시된 것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건반악기, 우쿨렐레, 오카리나, 가야금 악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진으로만 연주 자세가 제시된 교과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함께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악기 연주법 학습을 위한 제재곡을 분석한 결과, (주)금성출판사는 7곡, 다락원은 5곡, 미래엔은 9곡, (주)박영사는 7곡, 비상교육은 6곡, (주)아침나라는 6곡, 와이비엠은 4곡, (주)음악과생활은 8곡, 지학사는 4곡, 천재교과서는 15곡으로 나타났다. 제재곡을 가장 많이 수록한 출판사는 천재교과서이며, 독주곡 중심으로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기악 활동 비중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악곡이 더 많이 제시되어야 하며, 다양한 연주 형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기악 영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과서 개정과정에서 기악 학습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둘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음악 장르와 악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심미적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2

II. 이론적 배경

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4
2. 기악 교육의 필요성 8
3.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선행연구 10

I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14
2. 분석 절차 15
3. 분석 기준 및 방법 15

IV.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 악기연주법 비교·분석

1. 악기 종류 분석 17
2. 악기 배열 순서 19
3. 출판사별 악기 연주 자세와 연주법 22
4. 악기 연주법 학습을 위한 제재곡 80

V. 결론 88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I-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핵심 역량	5
〈표 II-2〉 2015 개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 선택 ‘음악’ 내용체계	6
〈표 II-3〉 2015 개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 선택 ‘음악’ 표현 영역 성취 기준	7
〈표 III-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 출판사 및 저자	14
〈표 III-2〉 분석 절차	15
〈표 IV-1〉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 10종에 제시된 서양악기	17
〈표 IV-2〉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 10종에 제시된 국악기	18
〈표 IV-3〉 출판사별 악기 배열 순서	20
〈표 IV-4〉 출판사별 소리가 발생하는 원리에 따른 악기 배열 순서	21
〈표 IV-5〉 기타 연주 자세와 연주법	22
〈표 IV-6〉 리코더 연주 자세와 연주법	32
〈표 IV-7〉 우쿨렐레 연주 자세와 연주법	38
〈표 IV-8〉 오카리나 연주 자세와 연주법	42
〈표 IV-9〉 드럼 연주 자세와 연주법	47
〈표 IV-10〉 소금 연주 자세와 연주법	51
〈표 IV-11〉 가야금 연주 자세와 연주법	57
〈표 IV-12〉 단소 연주 자세와 연주법	67
〈표 IV-13〉 사물놀이 연주 자세와 연주법	73
〈표 IV-14〉 장구 연주 자세와 연주법	76
〈표 IV-15〉 기타 제재곡	80
〈표 IV-16〉 리코더 제재곡	81
〈표 IV-17〉 우쿨렐레 제재곡	82
〈표 IV-18〉 오카리나 제재곡	82

<표 IV-19> 드럼 제재곡	83
<표 IV-20> 소금 제재곡	84
<표 IV-21> 가야금 제재곡	85
<표 IV-22> 단소 제재곡	85
<표 IV-23> 사물놀이(풍물) 제재곡	86
<표 IV-24> 장구 제재곡	87

그림 목 차

[그림 IV-1] 지학사 기타 연주 자세	23
[그림 IV-2] 다락원과 미래엔 기타 연주 자세	24
[그림 IV-3] 비상교육과 와이비엠 기타 연주 자세	24
[그림 IV-4] ㈜음악과생활 기타 연주 자세	25
[그림 IV-5] ㈜금성출판사 스트로크 주법	25
[그림 IV-6] 다락원 스트로크 주법	26
[그림 IV-7] 미래엔 스트로크 주법	26
[그림 IV-8] 비상교육 스트로크 주법	27
[그림 IV-9] 와이비엠 스트로크 주법	28
[그림 IV-10] ㈜음악과생활 스트로크 주법	28
[그림 IV-11] 지학사 스트로크 주법	29
[그림 IV-12] 천재교과서 스트로크 주법	29
[그림 IV-13] 다락원 아르페지오 주법	30
[그림 IV-14] 비상교육 아르페지오 주법	30
[그림 IV-15] 와이비엠 아르페지오 주법	31
[그림 IV-16] ㈜음악과생활 아르페지오 주법	31
[그림 IV-17] 미래엔과 비상교육 리코더 연주 자세	33
[그림 IV-18] ㈜아침나라 리코더 연주 자세	33
[그림 IV-19] 지학사 리코더 연주 자세	34
[그림 IV-20] 천재교과서 리코더 연주 자세	34
[그림 IV-21] 미래엔과 비상교육 리코더 연주법	35
[그림 IV-22] ㈜아침나라 리코더 연주법	35
[그림 IV-23] ㈜음악과생활 리코더 연주법	36
[그림 IV-24] 와이비엠 리코더 연주법	36
[그림 IV-25] 천재교과서 리코더 연주법	37

[그림 IV-26] 다락원 우쿨렐레 연주 자세	38
[그림 IV-27] 미래엔 우쿨렐레 연주 자세	39
[그림 IV-28] 지학사 우쿨렐레 연주 자세	39
[그림 IV-29] ㈜금성출판사 우쿨렐레 연주법	40
[그림 IV-30] 미래엔 우쿨렐레 연주법	40
[그림 IV-31] ㈜박영사 우쿨렐레 연주법	41
[그림 IV-32] 천재교과서 우쿨렐레 연주법	41
[그림 IV-33] 다락원 오카리나 연주 자세	43
[그림 IV-34] 미래엔 오카리나 연주 자세	43
[그림 IV-35] ㈜박영사 오카리나 연주 자세	43
[그림 IV-36] ㈜아침나라 오카리나 연주 자세	44
[그림 IV-37] 와이비엠 오카리나 연주 자세	44
[그림 IV-38] 지학사 오카리나 연주 자세	45
[그림 IV-39] 천재교과서 오카리나 연주 자세	45
[그림 IV-40] 천재교과서 오카리나 연주법	46
[그림 IV-41] 비상교육 드럼 연주 자세	47
[그림 IV-42] 지학사 드럼 연주 자세	48
[그림 IV-43] 천재교과서 드럼 연주 자세	48
[그림 IV-44] 비상교육 드럼 연주법	49
[그림 IV-45] 와이비엠 드럼 연주법	49
[그림 IV-46] 지학사 드럼 연주법	50
[그림 IV-47] ㈜금성출판사 소금 연주 자세	51
[그림 IV-48] 다락원 소금 연주 자세	52
[그림 IV-49] 미래엔 소금 연주 자세	52
[그림 IV-50] 비상교육 소금 연주 자세	53
[그림 IV-51] ㈜아침나라 소금 연주 자세	53
[그림 IV-52] 와이비엠 소금 연주 자세	54
[그림 IV-53] ㈜음악과생활 소금 연주 자세	54

[그림 IV-54] 지학사 소금 연주 자세	55
[그림 IV-55] 비상교육 소금 연주법	56
[그림 IV-56] 지학사 소금 연주법	56
[그림 IV-57] 천재교과서 소금 연주법	57
[그림 IV-58] ㈜금성출판사과 다락원 가야금 연주 자세	58
[그림 IV-59] ㈜박영사 가야금 연주 자세	59
[그림 IV-60] 비상교육 가야금 연주 자세	59
[그림 IV-61] 와이비엠 가야금 연주 자세	60
[그림 IV-62] ㈜음악과생활 가야금 연주 자세	60
[그림 IV-63] 지학사 가야금 연주 자세	61
[그림 IV-64] 천재교과서 가야금 연주 자세	62
[그림 IV-65] ㈜금성출판사 가야금 연주법	62
[그림 IV-66] 다락원 가야금 연주법	63
[그림 IV-67] ㈜박영사 가야금 연주법	63
[그림 IV-68] 비상교육 가야금 연주법	64
[그림 IV-69] 와이비엠 가야금 왼손 주법	64
[그림 IV-70] ㈜음악과생활 가야금 연주법	65
[그림 IV-71] 지학사 가야금 연주법	66
[그림 IV-72] 천재교과서 가야금 연주법	66
[그림 IV-73] 다락원 단소 연주 자세	67
[그림 IV-74] 미래엔 단소 연주 자세	68
[그림 IV-75] 비상교육 단소 연주 자세	69
[그림 IV-76] ㈜아침나라 단소 연주 자세	69
[그림 IV-77] ㈜음악과생활 단소 연주 자세	70
[그림 IV-78] 천재교과서 단소 연주 자세	71
[그림 IV-79] 비상교육과 ㈜음악과생활 단소 연주법	72
[그림 IV-80] ㈜금성출판사 사물놀이 연주 자세 및 연주법	74
[그림 IV-81] ㈜음악과생활 사물놀이 연주 자세 및 연주법	75

[그림 IV-82] 천재교과서 사물놀이 연주 자세 및 연주법	76
[그림 IV-83] 미래엔 장구 연주 자세 및 연주법	77
[그림 IV-84] ㈜박영사 장구 연주 자세 및 연주법	77
[그림 IV-85] 비상교육 장구 연주 자세 및 연주법	78
[그림 IV-86] 지학사 장구 연주 자세 및 연주법	7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 교과는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을 지향함에 따라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 영역이 강조되어 음악을 실제로 행하는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김미숙 외, 2015).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이 음악 학습 방법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악기를 통한 창의적인 학습을 추구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한정적인 악기로만 배웠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교육과정은 건반악기, 오카리나, 우쿨렐레 등 다양한 악기를 통한 학습을 보편화하고 있어 교육 방식의 시대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음악 연주’는 성악 및 기악의 다양한 연주 형태를 파악하고, 연주 활동을 통해 조화로운 소리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과 음악적 소통 역량을 기르는 활동이다(교육부, 2015).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기악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12~16%)은 가창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35~38%)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김하슬, 2021; 손승희, 2020; 정혜진, 2018). 더욱이, 정혜진(2018)의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교과서에서 특정 악기에 대한 연주법이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분석 연구들은 대부분 음악 활동 영역별 비중에 주목하였고,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기악영역을 분석한 연구(정혜진, 2018) 역시 악기의 종류, 연주법의 유무, 연주 형태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교과서가 악기 연주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얼마나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가 학생들의 악기 연주 학습에 어떠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 교과서가 제공하는 악기 연주 지도법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얻기 위해, 본 연구는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에서 나타나는 악기 연주법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음악 교육자들과 교과서 개발자들이 교과서에 포함된 악기 연주 지도법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악기 연주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법을 보다 세밀하게 세부화하고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10종 음악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악기의 종류는 무엇인가?

둘째, 고등학교 10종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악기는 어떠한 배열로 제시되었는가?

셋째, 고등학교 10종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연주 자세 및 연주법은 어떻게 제시되었는가?

넷째, 고등학교 10종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악기 연주법 학습을 위한 제
재곡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며, 일반 선택에는 ‘음악’, 진로 선택에는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이 있다(교육부, 2015). 또한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모두 수용하고 있어서 전체 교과를 아우르는 핵심역량과의 연계가 어느 교과 못지않게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민경훈 외, 2010, p. 201). 이 연구는 일반 선택 과목인 ‘음악’ 10종 교과서의 기악 영역을 분석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일반 선택인 ‘음악’ 교육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 성격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 교과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음악은 소리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로써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동체 속에 다른 사람과 소통 및 인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또한 ‘음악’ 교과는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음악의 아름다움 및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여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향상시켜 음악을 삶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 II-1>과 같은 음악과 교육과정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표 II-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핵심 역량¹⁾

핵심역량	내용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특징 및 가치를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깊이 있는 성찰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음악적 창의·융 합 사고 역량	음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토대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자신이 학습하거나 경험한 음악 정보들을 다양한 현상에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음악적 소통 역량	소리, 음악적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정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음악 정보처리 역량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분류, 평가, 조합함으로써 정보와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표현과 감상 활동,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표현력과 감수성을 길러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학습하고 그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음악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다.

1)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p.3-4.

나. 목표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 교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음악’은 음악적 정서 및 표현력 개발을 통해 자기표현 역량을 키우고 자아 정체성을 만들며, 문화의 다원적인 가치 인식으로 상대방을 존중 및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음악교육은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 육성에 이바지한다(교육부, 2015).

다.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1) 내용체계

2015 개정 음악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3가지 영역인 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분하였다. 기악 활동은 표현 영역에 속하므로 표현 영역의 내용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2015 개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 선택 ‘음악’ 내용체계²⁾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의 상호 작용 • 음악의 표현 방법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소리의 상호작용 및 음악의 표현 방법을 파악하여 노래, 연주, 음악 만들기, 신체표현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다.	음악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부르기 • 악기로 연주하기 • 신체표현하기 • 만들기 • 표현하기
			연주 자세와 연주법	

2)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p.23-24.

<표 II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 영역에서 소리의 상호 작용을 느끼며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인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내용 요소로는 음악의 구성을 하는 것과 연주 자세와 연주법을 익히며, 기능은 성취기준과 연결지어 ‘노래 부르기’, ‘악기로 연주하기’, ‘신체표현하기’, ‘만들기’, ‘표현하기’ 로 나뉜다(교육부, 2015).

2) 성취기준

성취기준은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의 내용 체계에 따라 구분된다. 기악 활동은 표현 영역에 속하므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 -3>과 같다.

<표 II -3> 2015 개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 선택 ‘음악’ 표현 영역 성취기준³⁾

- [12음01-01] 악곡의 특징을 파악하며 개성 있게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한다.
- [12음01-02] 악곡의 종류에 맞게 음악적 신체표현을 한다.
- [12음01-03] 음악의 구성을 파악하여 음악 작품을 만든다.
- [12음01-04] 여러 가지 예술에 어울리는 음악 작품을 만든다.
- [12음01-05] 바른 연주 자세와 호흡 및 명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거나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학습하여 표현한다.

표현 영역 성취기준은 5가지로 나뉘지며, 음악의 구성 요소 및 원리에 대한 ‘이해 및 노래’, ‘악기 연주’, ‘신체표현’, ‘창작하기’ 등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소리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며, 음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를 음악 활동과 연계하여 음악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악곡의 음악 요소를 이해하고 음악적으로 활용하여 곡의 분위기를 살려 자신의 생각 및 느낀 것을 음악작품으로 창작하여 표현한다. 그리고 다른 예술에도 음악적으로 활용하여

3)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p.25.

음악 작품을 만들어 표현한다.

바른 연주 자세로 악기를 연주하며, 호흡 및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여 음악적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노랫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며, 악기를 연주할 시에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연주하도록 한다(교육부, 2015)고 성취기준을 삼고 있다.

2. 기악 교육의 필요성

19세기까지 미국의 음악 교육은 가창 중심의 교육이었지만, 20세기에 기악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봤을 때도 활동 영역에 기악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이르기까지 한 번도 기악 영역이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적이 없으며, 이는 음악교육에서 기악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조효임, 장기범, 2004, p. 11-12, p. 15).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도 음악에 대한 활동이 강조되고 음악의 생활화가 중요한 내용 체계로 제시됨에 따라 음악 교과서에는 실생활과 접목된 악곡 및 내용 구성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유형의 악곡과 활동이 포함되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의 구성도 보다 강조되었다고 하였다(김미숙 외, 2015, p. 43).

Hoffer(1993)는 앙상블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음악적 경험이라고 지적하며, 기악 합주와 같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학생은 자기만의 파트를 독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됨으로써 음악적 독립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앙상블 연습은 정서적 흥미와 훌륭한 음악성을 계발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다(Hoffer, 1993, p. 115)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음악적 독립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음정의 높낮이를 조절해야 하는 가창 수업과는 달리, 기악 활동은 고유한 음정을 익힐 수 있게 되며, 사람의

목소리로 연주할 수 없는 음색도 악기를 통해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악기를 같이 연주하는 경우에는 더욱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창 활동만으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기악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차예송, 2019, p. 13)고 하였다. 다양한 악기를 같이 연주하는 기악 합주는 독립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닌 여러 사람과의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므로 친구들 간에 유대감 및 공감대 형성,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협동심 계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유빈, 2021, p. 9).

기악 활동의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심을 키울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음악적으로 성장하며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음악이 아닌 실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에서도 기악과의 공통점을 찾고 음색을 비교할 수 있어 스스로 음악적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독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됨으로써 음악적 독립심을 얻게 되어 스스로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음감과 음색 개발에 도움이 된다. 기악 활동을 통해 여러 악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음색을 비교하고 썸머림, 빠르기말, 나타냄말 등을 학습하면서 음악적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사람의 목소리로 연주할 수 없는 음역도 악기를 통해 표현할 수 있어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며 다양한 악기를 듀엣으로 연주하는 경우에는 더욱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셋째, 협동심과 협력을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악기를 함께 연주할 때 서로 호흡하면서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고 서로 배려하면서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협력을 배울 수 있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조화롭게 형성해가면

서 타인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음악적 소통 능력을 키우며,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협동심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3.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선행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기악 영역에 관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세은(2019)은 기악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세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베이스 기타는 연주법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기악 합주곡에 기재되어 베이스 기타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연주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연주 형태에 있어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반주 형태 및 2중주 형태가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3중주나 그 외의 연주 형태 등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은 연주 형태가 문제임을 밝혔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공통된 기악곡을 살펴봤을 때 학년이 다름에도 수준 차이가 거의 없게 나온 점을 지적하였다.

정혜진(2018)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의 기악 영역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출판사별 기악 영역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12.7%로,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주)음악과생활 기악영역의 15.6%보다 2.9% 감소한 수치임을 밝혔다. 또한 기악 영역의 분석을 통하여 기악 영역과 가장 많이 연계된 역량은 ‘음악적 소통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연계된 역량은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과 ‘음악정보처리 역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10종의 기악 영역에 제시된 악기의 연주법 분석을 통해 (주)금성출판사와 다락원을 제외한 나머지 8종의 교과서에서는 악기 총 14종에 대한 연주법이 전부 수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주)금성

출판사와 다락원 출판사에서 연주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악기는 각 1종으로 나타났으며, ‘건반악기’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기악 영역에 제시된 독주곡의 비율은 평균 69.6%로 나왔고, 합주곡은 19.5%, 2중주곡은 15.7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음악 10종 교과서 모두 2중주곡이나 합주곡에 비해 독주곡이 더 많이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성화(2015)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기악 영역 중 서양음악을 비교·분석하였다. 고등학교 음악교사 80명을 대상으로 하여 기악 수업 실태를 조사한 이성화(2015)는 기악 영역의 문제점으로 ‘수록된 악기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음’이 56.3%, 기타 의견에는 ‘교과서에 코드 분석 오류가 나타남’, ‘학생들의 흥미가 없는 제재곡이 많음’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다. 기악 교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악기 구비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기악 수업을 1년 동안 2회 미만으로 지도한 학교는 38.8%로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는 ‘악기가 부족하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 ‘번거로우며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음’ 등이 있었다고 하였다. 학교에 보유한 악기의 비율을 보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악기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교과서에 새로운 악기가 제시되어 제재곡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악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은 그 악기를 가지고 수업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이성화, 2015).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10종 음악교과서 ‘표현 영역’을 분석한 김하슬(2021)은 ‘표현 영역’이 총 1157개(100%) 중 650개(5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표현 영역’을 살펴보면 ‘가창’ 409개(35.4%), ‘기악’ 188개(16.2%), ‘창

작’ 53개(4.6%)의 비중으로 ‘가창’이 가장 큰 비중이었고, ‘창작’이 가장 적은 비중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용 요소에 의하면 ‘연주 자세와 호흡법’에서는 지학사와 다락원이 총 91개(100%) 중 11개(1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금성출판사가 7개(7.6%)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연주 자세와 호흡법’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였다.

한예림(2016)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51개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중학교 통합 교과서별 기악 영역 실태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교과서별 악기 수록에서는 소금, 단소, 기타가 17개 음악 교과서 중 15개 음악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리코더가 14개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리북(1개)이나 하모니카(2개), 우쿨렐레(3개) 등은 거의 실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각 교과서의 해당하는 악기의 쪽수, 운지법 제시의 유무, 연습곡 수 등에서도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소리북 같은 경우에는 1개 교과서에서 1페이지 분량으로 제시되어 있고 연습곡은 1개이며, 이와 같은 차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악기를 접하는 경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예림(2016)은 쉽게 연주할 수 있는 리코더 등의 악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에 제시된 기악 영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여러 악기의 운지법을 익히고 연주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악기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기악 영역 분석과 비교뿐만 아니라 기악 수업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보였다. 가창 영역에 비해 기악 영역은 비중이 적은 편이었고, 교과서 내 연주법이 소개되지 않은 악기가 기악 합주곡에 편성되어 그 악기를 배운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연주하기 힘들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연주 형태에 있어서 반주 형태와 2중주 형태가 많이 제시되

어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3중주나 그 외의 연주 형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다양하지 않은 연주 형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당 악기의 페이지 수, 운지법 제시의 유무, 연습곡 수 등에서도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악기를 접할 기회를 줄이므로 기악 영역에서 더 다양한 악기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악기로 수업이 힘든 경우가 많고 교과서에 제시된 코드 분석 오류가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제재곡이 많다는 문제점도 나왔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기악 영역의 연주법 분석, 악기주법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에서 나타나는 악기 연주법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통해, 음악 교육자들과 교과서 개발자들이 교과서에 포함된 악기 연주 지도법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악기 연주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법을 보다 세밀하게 세부화하고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의 악기 연주 자세와 연주법 분석기준 및 방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분석 대상

(주)금성출판사, 다락원, 미래엔, (주)박영사,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에서 출판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표 Ⅲ-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 출판사 및 저자

구분	출판사(가나다순)	저자
1	금성	김용희 외 4인
2	다락원	조대현 외 6인
3	미래엔	장기범 외 8인
4	박영사	주광식 외 3인
5	비상교육	주대창 외 3인
6	아침나라	김광옥 외 5인
7	와이비엠	강민선 외 8인
8	음악과생활	양종모 외 8인
9	지학사	황병숙 외 6인
10	천재교과서	최은식 외 6인

2.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연구 주제 선정,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 연구, 분류 기준 정립, 분류 기준에 따른 교과서 분석, 분석 결과 작성 및 결론 도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본 분석 절차에 관한 표는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분석 절차

순서	연구내용	연구기간
1	연구 주제 선정,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 연구	2022년 11월~2023년 5월
2	분류 기준 정립	2023년 2월~2023년 3월
3	분류 기준에 따른 교과서 분석	2023년 1월~2023년 5월
4	분석 결과 작성 및 결론 도출	2023년 4월~2023년 5월

3. 분석 기준 및 방법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에 수록된 악기연주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출판사별로 서양악기와 국악기로 구분하여 수록된 악기 종류를 분석한 후, 10종의 교과서 중 4종 이상에 수록된 악기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이는 악기의 종류와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각 출판사별로 어떤 악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각 출판사별로 제시된 악기 배열 순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출판사가 악기를 배열하는 기준과 원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악기 연주법의 배열 순서는 학생들이 악기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셋째, 악기 연주법은 서양악기, 국악기로 분류하여 악기별로 연주 자세와 연주법을 분석하였다. 이는 각 악기에 대한 교과서의 지도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출판사에서 출간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악기 연주법 학습을 위한 제재곡을 분석하였다.

IV.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 악기연주법 비교·분석

1. 악기 종류 분석

가. 서양악기

악기 종류는 크게 국악기와 서양 악기로 구분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 10종에 제시된 서양 악기는 기타, 소프라노 리코더, 알토 리코더, 우쿨렐레, 오카리나, 드럼, 피아노, 북웨커, 켈베, 카혼 등이다. 그 결과는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 10종에 제시된 서양악기

출판사 악기	금성	다락원	미래엔	박영사	비상교육	아침나라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	총계
기타	○	○	○	X	○	○	○	○	○	○	9
소프라노 리코더	X	X	○	X	○	○	○	○	○	○	7
알토 리코더	X	X	○	X	○	○	○	○	○	○	7
우쿨렐레	○	○	○	○	X	○	X	X	○	○	7
오카리나	X	○	○	○	X	○	○	X	○	○	7
드럼	X	X	X	X	○	X	○	○	○	○	5

피아노	○	○	X	○	X	X	X	○	X	X	4
뽀웨커	X	X	○	○	X	X	X	X	X	X	2
젬베	X	○	X	X	X	X	X	X	X	X	1
카혼	X	○	X	X	X	X	X	X	X	X	1

<표 IV-1>의 서양 악기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악기는 기타로서 (주) 박영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나타났다. 그다음 많이 제시된 악기는 소프라노 리코더, 알토 리코더, 우쿨렐레, 오카리나가 공통적으로 7종의 교과서에서 나타났고 드럼이 5종의 교과서에서 제시되었다. 다락원, 미래엔, (주) 음악과생활, 지학사 교과서에서 6종의 다양한 악기가 제시되어 있다.

나. 국악기

출판사별로 제시된 국악기에서는 소금, 가야금, 단소 사물놀이(풍물), 장구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 10종에 제시된 국악기

출판사 악기	금성	다락원	미래엔	박영사	비상교육	아침나라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	총계
소금	○	○	○	X	○	○	○	○	○	○	9
가야금	○	○	X	○	○	X	○	○	○	○	8
단소	X	○	○	○	○	○	X	○	X	○	7

사물놀이 (풍물)	O	O	X	X	X	O	X	O	O	O	6
장구	X	X	O	O	O	X	X	X	O	X	4

국악기 종류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악기는 소금으로, (주)박영사를 제외한 9종의 교과서에서 제시되었다. 그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악기는 산조 가야금으로 8종의 교과서에서 제시되었으며, 단소는 7종, 사물(풍물)놀이가 6종, 장구가 4종의 교과서에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0종의 교과서 중 4종 이상에 수록된 악기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서양악기는 기타, 소프라노 리코더, 알토 리코더, 우쿨렐레, 오카리나, 드럼을, 국악기는 소금, 가야금, 단소, 사물놀이, 장구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악기들은 각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악기들로, 악기별 연주법의 분석을 통해 교과서가 제공하는 악기 교육의 특징과 방향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악기 배열 순서

악기 배열 순서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10종의 교과서 중 대다수가 서양악기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국악기를 소개하는 순서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락원, (주)박영사,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와이비엠, 지학사, 천재교과서 등이 이러한 배열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금성출판사와 미래엔은 이와 반대로 국악기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서양악기를 소개하는 순서를 사용하였으며, (주)음악과생활은 서양악기와 국악기를 번갈아 소개하는 순서를 사용하였다.

<표 IV-3> 출판사별 악기 배열 순서

출판사	악기 배열 순서
금성	소금 → 산조 가야금 → 사물놀이 → 건반악기 → 기타와 우쿨렐레 → 멀티미디어 음악
다락원	오카리나 → 건반악기 → 잼베와 카혼 → 기타 → 우쿨렐레 → 단소와 소금 → 가야금 → 사물놀이
미래엔	장구 → 단소 → 소금 → 리코더와 오카리나 → 기타와 우쿨렐레 → 붐웨커 → 컵타 → 기악합주
박영사	피아노 → 오카리나 → 우쿨렐레 → 붐웨커 → 단소 → 산조 가야금 → 설장구
비상교육	리코더 → 기타 → 드럼 → 단소 → 소금 → 장구 → 산조 가야금
아침나라	리코더와 오카리나 → 기타와 우쿨렐레 → 단소와 소금 →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 난타
와이비엠	리코더 → 오카리나 → 기타 → 드럼 → 매체를 활용한 음악 연주 → 가야금 → 소금
음악과 생활	피아노 → 단소 → 소금 → 리코더 → 기타 → 산조 가야금 → 사물놀이 → 드럼
지학사	기타와 우쿨렐레 → 오카리나와 리코더 → 드럼 → 모바일 앱 연주법 → 설장구 → 사물놀이 → 소금 → 산조 가야금
천재	리코더와 오카리나 → 기타와 우쿨렐레 → 드럼 → 합주 → 단소 → 소금 → 사물놀이 → 산조 가야금 → 컴퓨터와 음악

소리가 발생하는 원리에 따라 몸 울림 악기, 막 울림 악기, 전자 울림 악기, 현 울림 악기, 관 울림 악기, 멀티미디어 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몸 울림 악기란 몸체를 울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악기의 몸체를 때리거나 긁고 흔들어서 소리 내는 악기이다. 막 울림 악기는 막을 진동해 소리를 내는 악기로, 테에 걸친 가죽 또는 막을 때리거나 문질러 소리 내는 악기이다. 전자 울림 악기란 발음의 근원이 되는 진동 자체를 전기적인 처리로 만들어

소리 내는 악기이다. 현 울림 악기는 현의 울림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악기로, 활이나 술대, 손 등으로 팽팽한 현을 긁거나 튕겨서 소리 내는 악기이다. 관 울림 악기는 관에 김을 불어 넣어 소리를 내는 악기로, 공기의 진동 방식에 따라 입김을 불어 넣거나 입술을 떨어서 소리 내는 악기이다. <표 IV-4>는 출판사별 소리가 발생하는 원리에 따른 악기 배열 순서이다.

<표 IV-4> 출판사별 소리가 발생하는 원리에 따른 악기 배열 순서

출판사	악기 배열 순서
금성	관 울림 악기 → 현 울림 악기 → 몸 울림악기 & 막 울림 악기 → 멀티미디어 음악
다락원	관 울림 악기 → 현 울림 악기 → 막 울림 악기 → 몸 울림 악기 & 막 울림 악기
미래엔	막 울림 악기 → 관 울림 악기 → 현 울림 악기 → 몸 울림 악기
박영사	현 울림 악기 → 관 울림 악기 → 몸 울림 악기 → 막 울림 악기
비상교육	관 울림 악기 → 현 울림 악기 → 막 울림 악기
아침나라	관 울림 악기 → 현 울림 악기 → 몸 울림 악기 & 막 울림 악기
와이비엠	관 울림 악기 → 현 울림 악기 → 막 울림 악기 → 멀티미디어 음악
음악과생활	현 울림 악기 → 관 울림 악기 → 몸 울림 악기 & 막 울림 악기
지학사	현 울림 악기 → 관 울림 악기 → 막 울림 악기 → 멀티미디어 음악
천재	관 울림 악기 → 현 울림 악기 → 막 울림 악기 → 멀티미디어 음악

3. 출판사별 악기 연주 자세와 연주법

고등학교 10종 교과서에 수록된 악기연주법 분석을 위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 요소인 연주 자세와 연주법을 악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 기타 연주법

기타가 수록된 교과서는 (주)박영사를 제외한 (주)금성출판사, 다락원, 미래엔,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와이비엠, (주)음악과 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 등 9종이다. 다음 <표 IV-5>는 이들 9종에 제시된 기타 연주 자세와 연주법을 분석한 것이다.

<표 IV-5> 기타 연주 자세와 연주법

구분	금성	다락원	미래엔	비상교육	아침나라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
연주 자세	X	O	O	O	X	O	O	O	O
스트로크 주법	O	O	O	O	X	O	O	O	O
아르페지오 주법	X	O	X	O	X	O	O	X	X

연주 자세에 대한 설명은 (주)금성출판사와 (주)아침나라를 제외한 다락원, 미래엔, 비상교육,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에 제시되었

으며, 다락원, 와이비엠, 천재교과서에서는 글로 설명하는 것 대신 사진으로만 제시되었다. 악기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이 지학사와 같이 제시된 사진과 함께 추가적인 설명이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림 IV-1] 참조).



[그림 IV-1] 지학사 기타 연주 자세

다락원은 [그림 IV-2]와 같이 기타의 연주 자세에서 설명 없이 연주하는 손가락 모습만 사진으로 제시되어 손가락 각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미래엔에서는 전체적인 연주 모습과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어 악기 연주하는 손가락 모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림 IV-2] 다락원과 미래엔 기타 연주 자세

비상교육은 연주 자세를 [그림 IV-3]과 같이 연주하는 사진과 함께 설명을 3가지로 제시하여 연주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와이비엠은 전체적인 연주 사진으로만 제시되어 어느 정도 따라서 할 수는 있어도 구체적으로 헤드 각도나 몸의 자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림 IV-3] 비상교육과 와이비엠 기타 연주 자세

(주)음악과생활에서는 [그림 IV-4]와 같이 기타 연주하는 전체적인 모습과 손가락 연주하는 사진으로 나와 있으며, 자유로운 자세로 연주 및 ‘픽’이

라는 악기 도구를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막연한 설명이 아닌 구체적인 연주 자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사진으로만 연주 자세가 제시된 교과서에서는 연주 자세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사진과 함께 추가적인 설명이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4] (주)음악과생활 기타 연주 자세

기타 연주법은 스트로크 주법과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나뉘지는데, 스트로크 주법은 (주)아침나라를 제외한 8종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스트로크 주법이 기재된 (주)금성출판사는 [그림 IV-5]와 같이 업 스트로크와 다운 스트로크로 나뉘지며 4비트, 8비트, 칼립소(Calypso) 리듬으로 제시되었다.

2 스트로크 주법을 연습해 보자.

4비트

8비트

칼립소

스트로크 주법
 기타의 여러 줄을 향해 내려치거나 올려 치는 주법으로, 기본적으로 업 스트로크와 다운 스트로크 주법이 있다.

- v (Up Stroke):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스트로크로, ↑로 표기하기도 한다.
- ▾ (Down Stroke):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치는 스트로크로, ↓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림 IV-5] (주)금성출판사 스트로크 주법

기타의 스트로크 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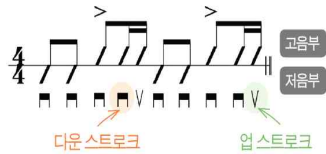
다운 스트로크 (▼)

픽의 각도를 아래로 살짝 기울여 기울여 픽의 각도를 위로 살짝 기울여 부드럽게 쓸어 내리듯 친다.



업 스트로크 (▲)

픽의 각도를 위로 살짝 기울여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친다.



리듬음표가 저음부에 있으면 6, 5, 4, 3번 줄을 주로 치고, 고음부에 있으면 4, 3, 2, 1번 줄을 주로 친다. 나누어지지 않을 때는 모두 고르게 치지만, 고음부의 소리가 잘 나도록 쳐야 음색이 아름답다.

[그림 IV-6] 다락원 스트로크 주법

다락원은 [그림 IV-6]과 같이 스트로크 주법을 업 스트로크와 다운 스트로크로 나눠 픽의 각도를 중점적으로 하여 설명하였으며, 다른 리듬 유형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래엔에서는 [그림 IV-7]과 같이 스트로크 주법에서 업 스트로크와 다운 스트로크 주법으로 나눠 사진으로 제시되었다.

스트로크 주법

스트로크(Stroke)는 여러 줄을 한꺼번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기타



다운 스트로크를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친다.



업 스트로크를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친다.

[그림 IV-7] 미래엔 스트로크 주법

● *스트로크 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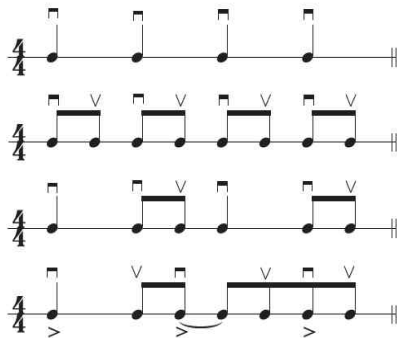
① 업 스트로크(v)

② 다운 스트로크(∩)



* 스트로크(stroke) 손이나 픽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줄을 동시에 치는 주법

● 스트로크 리듬 연습



[그림 IV-8] 비상교육 스트로크 주법

비상교육에서는 [그림 IV-8]과 같이 스트로크 주법을 업 스트로크, 다운 스트로크로 나눠 설명하였으며, 리듬 유형에서 4비트, 8비트, 스윙, 칼립소 리듬이 제시되었는데, 리듬을 잘 구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리듬 명칭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 와이비엠에서는 [그림 IV-9]와 같이 4분의 4박자의 스트로크 주법이 제시되어 다운 스트로크와 업 스트로크를 번갈아 가며 연주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4 포크 기타를 스트로크 주법으로 연주해 보자.

- 손이나 픽으로 여러 줄을 한번에 내려치거나 올려쳐서 연주한다. 내려치는 것을 '다운(∩) 스트로크', 올려치는 것을 '업(V) 스트로크'라고 한다.
- 소리 나는 줄이 고르게 울릴 수 있도록 픽의 각도를 조절하고, 알맞은 세기와 빠르기로 연주한다.
- $\frac{4}{4}$ 박자의 스트로크 주법

[그림 IV-9] 와이비엠 스트로크 주법

(주)음악과생활은 [그림 IV-10]과 같이 리듬 스트로크 주법에서 4비트, 8비트로 구분되어 연습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각 리듬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리듬마다 명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2 리듬 스트로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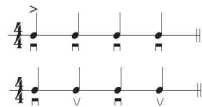
리듬 스트로크(rhythm stroke) 주법은 주로 픽을 사용하는데 이는 ⑥번 선에서 ①번 선으로 내려치는 다운 스트로크(∩)와 그 반대로 올려치는 업 스트로크(V)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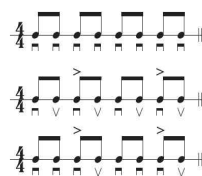
▲ 다운 스트로크 ▲ 업 스트로크

- $\frac{4}{4}$ 박자의 리듬 스트로크

기본 유형 ① 4비트(1마디에 4분음표가 4개 있는 유형)



기본 유형 ② 8비트(1마디에 8분음표가 8개 있는 유형)



[그림 IV-10] (주)음악과생활 스트로크 주법

지학사는 [그림 IV-11]과 같이 스트로크 주법에서 4비트, 8비트, 칼립소, 셔플(Shuffle)로 제시되었다. 천재교과서는 스트로크 주법에서 고고, 슬로우 록, 스윙, 칼립소(Calypso)로 8종 교과서 중 가장 다양한 스트로크 주법이 제시되었는데, 추가적으로 4비트, 8비트도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그림 IV-12] 참조).

2 스트로크 주법을 연습해 보자.

*** 스트로크**
손가락이나 픽(pick)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줄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으로, 다운(down) 스트로크(▼, 아래로)와 업(up) 스트로크(▲, 위로)가 있다.

● 4비트

● 8비트

● 칼립소(Calypso)

● 셔플(Shuffle)

[그림 IV-11] 지학사 스트로크 주법

○ 스트로크 연주법

고고

슬로우 록

스윙

칼립소

[그림 IV-12] 천재교과서 스트로크 주법

아르페지오 주법은 다락원, 비상교육,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에서만 수록되었으며, 다락원에서는 [그림 IV-13]과 같이 아르페지오 주법이 오른손 손가락 기호와 함께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로 나눠 제시되었다.

기타의 아르페지오 연주법

아르페지오는 한 개의 화음에 속하는 각음을 동시에 연주하지 연주하지 않고 한 음씩 차례로 연속적으로 연주하는 주법을 말한다.

오른손 손가락 기호

t 엄지
i 검지
m 중지
a 약지
※ 소지는 보통 사용하지 않음.

아르페지오 연습

[그림 IV-13] 다락원 아르페지오 주법

비상교육에서는 [그림 IV-14]와 같이 아르페지오 주법에 추가로 타브 악보까지 제시되어 계이름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원활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르페지오 주법**

▲ 줄 통기는 손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D i m i a i m i D i m i a i m i

5번 줄의 제3프렛을 오른손 D로 통기라는 뜻

오른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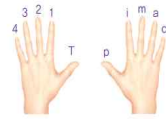
▲ 줄 통기는 손가락 기호

*** 아르페지오(arpeggio) 펼침화음(화음의 구성 음들을 펼친)의 형태로 줄을 통기는 주법**

[그림 IV-14] 비상교육 아르페지오 주법

5 포크 기타를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연주해 보자.

- 각 손가락으로 줄을 뜯는 주법이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낮은음을 연주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리듬과 가락을 연주한다.
- 오른손 엄지손가락부터 차례로 p, i, m, a, ch로 표기한다.



▲ 기타 손가락 번호

3/4 박자 아르페지오 주법 4/4 박자 아르페지오 주법

8분음표 리듬 4분음표 리듬

태블러주어

숫자, 문자, 기호 등으로 나타내는 악기 기보법이다. 소리 구멍을 짚는 법, 현이나 프렛의 위치 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악기에 따라 표시법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Tab' 악보라고 부른다.

[그림 IV-15] 와이비엠 아르페지오 주법

와이비엠에서 [그림 IV-15]와 같이 타브 악보와 함께 8분음표 리듬과 4분음표 리듬으로 나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점이 특징적이다.

1 아르페지오(arpeggio)

아르페지오는 화음의 구성음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연주하는 분산 화음이다. 일반적으로 아르페지오는 픽(pick)을 사용하기보다는 오른손 손가락을 이용한 핑거링 주법으로 연주한다.

- 3/4박자의 아르페지오

- 4/4박자의 아르페지오



▲ 아르페지오 연주 모습

[그림 IV-16] (주)음악과생활 아르페지오 주법

(주)음악과생활에서는 [그림 IV-16]과 같이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나눠 설명하는데, 지속음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서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계이름을 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타브 악보도 함께 기재될 필요가 있다.

나. 리코더 연주법

리코더가 수록된 교과서는 미래엔,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까지 7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다음 <표 IV-6>은 이들 7종에 제시된 리코더 연주 자세와 연주법을 분석한 것이다.

<표 IV-6> 리코더 연주 자세와 연주법

구분	미래엔	비상교육	아침나라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
연주 자세	○	○	○	X	X	○	○
연주법	○	○	○	○	○	X	○

연주 자세에 대한 설명은 7종 교과서 중 와이비엠과 (주)음악과생활을 제외한 5종 교과서에만 나타났다. 미래엔은 리코더와 오카리나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IV-17]과 같이 전체적으로 연주하는 사진과 함께 손끝으로 구멍을 막아 소리 내는 법과 서밍(thumbing)에 대해 설명한다. 비상교육은 미래엔과 동일하게 전체적인 연주 사진이 제시되었지만, 몸의 각도에 중점을 두고 설명한다.



[그림 IV-17] 미래엔과 비상교육 리코더 연주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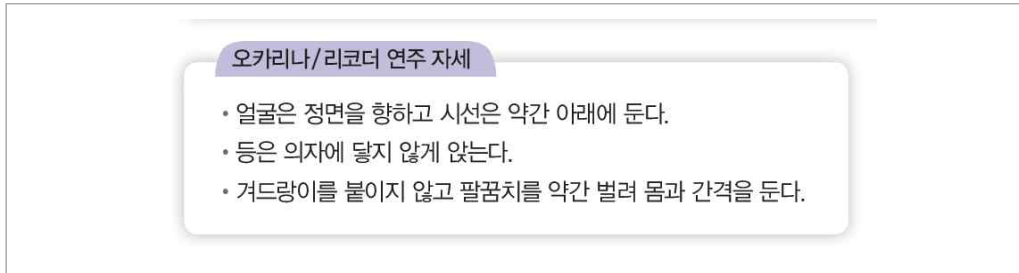
연주 자세 및 방법

- 취구를 입술로 가볍게 물어 목에 힘을 주지 않고, 안정된 호흡으로 일정하게 소리 낸다.
- 손 전체에 힘을 풀고 손가락 끝의 지문이 있는 부분으로 구멍을 살짝 막는다.
- 낮은 소리는 부드럽게, 높은 소리는 조금 강하게 분다.
- 혀를 이용해 낮은음은 ‘두’, 높은음은 ‘투’로 발음하는 것처럼 바람을 불어 넣는다.

[그림 IV-18] (주)아침나라 리코더 연주 자세

(주)아침나라는 [그림 IV-18]과 같이 연주 자세와 방법에 대해 같이 나와 있으며, 소리 내는 법과 관련하여 낮은 소리, 높은 소리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앞서 나온 미래엔과 비상교육보다는 연주 자세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었지만, 몸의 자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연주할 때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지학사처럼 몸의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지학사에서는 [그림 IV-19]와 같이 연주할 때 손 모양보다 몸의 자세나 시선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천재교과서는 [그림 IV-20]과 같이 연주할 때 손 모양이나 리코더 부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 사진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IV-19] 지학사 리코더 연주 자세



[그림 IV-20] 천재교과서 리코더 연주 자세

리코더 연주법은 지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에서 수록되었다. 미래엔은 [그림 IV-21]과 같이 오카리나 연주법과 동일하게 텅잉(tonguing) 주법이 나타나는데, 텅잉을 제외한 다른 주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에 반해 비상교육에서는 연주법으로 텅잉, 논 레가토, 레가토, 스타카토 주법으로 이를 제재곡에 적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하며 악보와 함께 제시되었다.


<p>텅잉(Tonguing) 주법 혀끝을 윗니 뒤쪽에 두고 가볍게 혀를 앞으로 밀면서 '드나' '두'라 고 발음하고 입안의 공기를 내보 내어 소리 낸다.</p>	<p>연주법</p> <p>① 텅잉: 혀끝을 '투웃'하고 움직여 바람을 불어넣는다.</p> <p>② 논 레가토: 각 음이 구별되도록 조금 끊듯이 연주한다.</p>  <p>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p> <p>③ 레가토: 음과 음을 이어서 연주한다.</p>  <p>두 - - - 두 - - - 두</p> <p>④ 스타카토: 음을 1/2 정도로 짧게 끊어서 연주한다.</p>  <p>듯 듯 듯 듯 듯 듯 듯 듯 두</p>
미래엔	비상교육

[그림 IV-21] 미래엔과 비상교육 리코더 연주법

(주)아침나라는 [그림 IV-22]와 같이 텅잉, 레가토, 스타카토, 포르타토 주법이 제시되었으며, (주)음악과생활에서도 [그림 IV-23]과 같이 (주)아침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악보와 함께 텅잉 연주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시되었다.


리코더 주법

Legato (레가토) 음과 음 사이를 끊지 않고 연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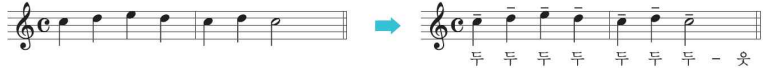
두 - - 웃 두 웃 두 - 웃

Staccato (스타카토) 음을 하나 하나 끊어서 짧게 연주하기



듯 듯 듯 듯 듯 듯 두 - 웃

Portato (포르타토) 음마다 텅잉을 하되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기



두 두 두 두 두 두 두 - 웃

텅잉(Tonguing) 혀끝을 윗니 뒤쪽에 대었다 때는 방법으로 음과 음 사이에 발음을 하는 기술

[그림 IV-22] (주)아침나라 리코더 연주법

주법

- Legato(레가토) 음과 음 사이를 끊지 않고 연주하기


- Staccato(스타카토) 음을 하나 하나 끊어서 짧게 연주하기

- Portato(포르타토) 음마다 텅잉을 하되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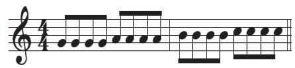

[그림 IV-23] (주)음악과생활 리코더 연주법

와이비엠에서는 앞서 나왔던 레가토, 스타카토, 포르타토 주법은 제시되지 않고 텅잉 주법을 기본으로 하여 4분음표인 싱글 텅잉과 8분음표인 더블 텅잉으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그림 IV-24] 참조).

2 리코더로 정확한 리듬을 표현하기 위하여 텅잉 주법을 익혀 연주해 보자.

싱글 텅잉 

빠르지 않은 리듬에서는 '투(tu)'나 '두(du)'로 발음하면서, 허끝을 윗니 뒤쪽에 대었다 떼는 것을 반복한다.

더블 텅잉 

빠른 리듬에서는 첫 음만 허끝을 윗니 뒤쪽에 대고 다음 음은 공기만 불어 넣어 '투쿠투쿠'나 '두구두구'로 연주한다.

소리가 거칠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러개 '두-' 정도로 발음해 보고 점차 세게 해 본다. 낮은 소리는 투(tu), 가운데 소리는 투(tu), 높은 소리는 티(ti), 튜(tu) 등으로 연주한다. 익숙해지면 '투-' 소리를 내지 않고 혀의 위치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그림 IV-24] 와이비엠 리코더 연주법

● 텅잉(tonguing) 연주법

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혀끝을 윗니 뒤쪽에 두고 혀를 앞으로 가볍게 밀면서 소리를 낸다. 낮은 소리는 부드럽게 불고, 높은 소리는 강하게 분다. ♡ 154쪽 부록 운지법(리코더·오가리나)

● 논 레가토(non legato)



● 레가토(legato)



● 포르타토(portato)



● 스타카토(staccato)



[그림 IV-25] 천재교과서 리코더 연주법

천재 교과서에는 [그림 IV-25]와 같이 소리 내는 법과 관련해 텅잉 연주법을 기본으로 하여 논 레가토, 레가토, 포르타토, 스타카토 주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악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코더 주법에서는 악곡과 관련하여 레가토, 스타카토, 포르타토와 같은 다양한 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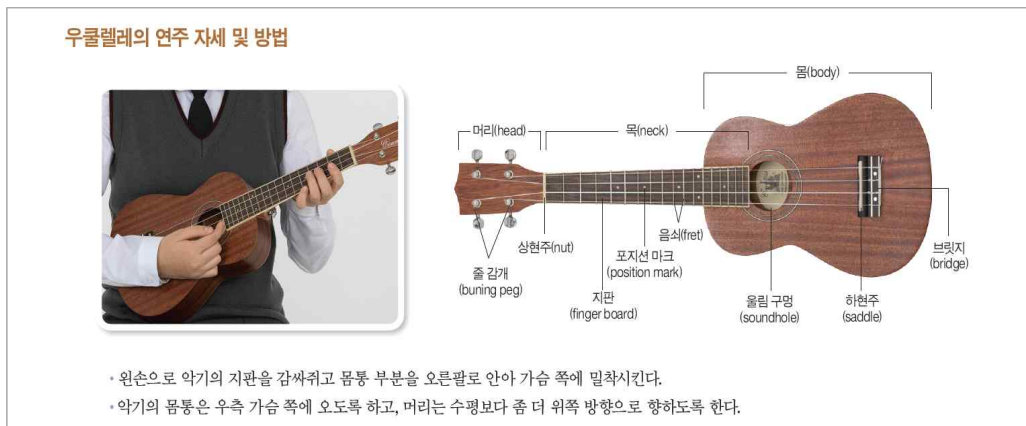
다. 우쿨렐레 연주법

우쿨렐레가 수록된 교과서는 (주)금성출판사, 다락원, 미래엔, (주)박영사, (주)아침나라, 지학사, 천재교과서 7종이다. 다음 <표 IV-7>은 이들 7종에 제시된 우쿨렐레 연주 자세와 연주법을 분석한 것이다.

<표 IV-7> 우쿨렐레 연주 자세와 연주법

구분	금성	다락원	미래엔	박영사	아침나라	지학사	천재
연주 자세	X	O	O	O	X	O	O
연주법	O	O	O	O	X	O	O

연주 자세는 (주)금성출판사와 (주)아침나라를 제외한 다락원, 미래엔, (주)박영사, 지학사, 천재교과서에만 설명되어 있으며, 다락원은 [그림 IV-26]과 같이 연주 자세 사진과 함께 악기를 잡는 방법과 몸의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미래엔에서는 [그림 IV-27]과 같이 우쿨렐레를 잡는 손의 위치를 오른손과 왼손으로 나눠서 설명하며, 연주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다. (주)박영사는 연주 사진이 나오지 않았지만, 악기 위치 조정과 조율하는 법, 왼손과 오른손 주법으로 나눠서 연주 자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림 IV-26] 다락원 우쿨렐레 연주 자세



[그림 IV-27] 미래엔 우쿨렐레 연주 자세

지학사는 [그림 IV-28]과 같이 악기 위치와 왼손과 오른손으로 나뉘어 사진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천재교과서에서는 우쿨렐레 잡는 연주 자세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사진만 제시되었다. 우쿨렐레는 잡는 위치에 따라 음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주 자세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28] 지학사 우쿨렐레 연주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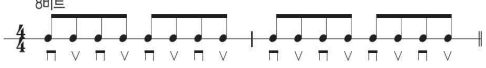
우쿨렐레 연주법은 (주)아침나라를 제외한 6종 교과서에 모두 나타났으며, (주)금성출판사는 [그림 IV-29]와 같이 기타 연주법과 똑같이 스트로크 주법에 서 4비트, 8비트, 칼립소 리듬으로 제시되었다.

2 스트로크 주법을 연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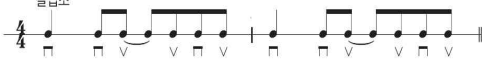
4비트



8비트



칼립소



스트로크 주법
 기타의 여러 줄을 향해 내려지거나 올려 치는 주법으로, 기본적으로 업 스트로크와 다운 스트로크 주법이 있다.

- v (Up Stroke):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스트로크로, ↑로 표기하기도 한다.
- ∩ (Down Stroke):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치는 스트로크로, ↓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림 IV-29] (주)금성출판사 우쿨렐레 연주법

다락원에서는 스트로크 주법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스트로크 주법을 간단하게 연주할 수 있는 부분만 제시하였다. 이에 스트로크 주법과 관련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미래엔에서는 [그림 IV-30]과 같이 스트로크 주법에 관하여 엄지, 검지 스트로크 주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실질적인 연주에 있어 이처럼 두 가지 연주법으로 나뉘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쿨렐레




① 엄지 스트로크



엄지손가락을 펴서 부드럽게 위아래로 스트로크 한다.

② 검지 스트로크



집게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접었다 폈다 하며 위아래로 스트로크 한다.

[그림 IV-30] 미래엔 우쿨렐레 연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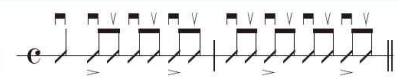
(주)박영사는 [그림 IV-31]과 같이 기본 코드 진행을 활용하여 기본 8비트, 칼립소, 스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악곡에 엄지 스트로크, 검지 스트로크 주법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미래엔처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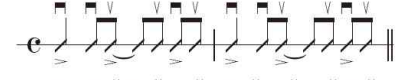
활동 3 우쿨렐레의 스트로크 주법을 살려, 기본 코드 진행을 다양한 리듬으로 연주해 보자.


<기본 코드 진행>

- 1 C - F - Dm - G
- 2 C - Am - F - G
- 3 C - Em - F - G7

스트로크 주법
오른손으로 여러 줄을 한꺼번에 긁어 연주하는 주법. 네 손가락으로 내려치는 다운 스트로크(▼)와, 엄지로 올려치는 업 스트로크(▲) 주법이 있다.

기본 8비트 

칼립소 

스윙 

[그림 IV-31] (주)박영사 우쿨렐레 연주법

지학사에서는 앞서 나왔던 기타 주법과 똑같이 제시되었고 그 우쿨렐레 주법의 유형으로 4비트, 8비트, 칼립소, 셔플로 나뉜다. 천재교과서는 [그림 IV-32]와 같이 스트로크 연주법의 유형으로 고고, 슬로우 록, 스윙, 칼립소가 제시되었으며, 지학사와 리듬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스트로크 연주법

고고



슬로우 록



스윙



칼립소



[그림 IV-32] 천재교과서 우쿨렐레 연주법

라. 오카리나 연주법

오카리나가 수록된 교과서는 다락원, 미래엔, (주)박영사, (주)아침나라, 와이비엠, 지학사, 천재교과서 7종이다. 다음 <표 IV-8>은 이들 7종에 제시된 오카리나 연주 자세와 연주법을 분석한 것이다.

<표 IV-8> 오카리나 연주 자세와 연주법

구분	다락원	미래엔	박영사	아침나라	와이비엠	지학사	천재
연주 자세	O	O	O	O	O	O	O
연주법	O	O	O	O	X	X	O

연주 자세에 관련한 설명은 7종 교과서에 모두 나타났으며, 다락원은 [그림 IV-33]과 같이 연주할 때 몸의 자세와 복식 호흡을 활용하여 텅잉 주법으로 소리 내는 법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또한 연주 기술과 관련해서 긴 음표로 음이 지속될 때 비브라토 넣는 법까지 추가적으로 기재하였다. 오카리나는 연주 기술에 따라 음색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림 IV-33]과 같이 연주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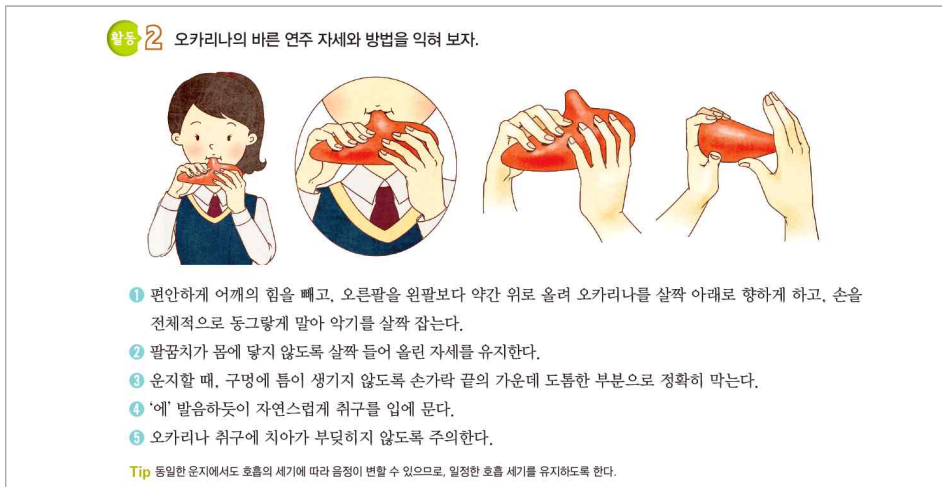


[그림 IV-33] 다락원 오카리나 연주 자세



[그림 IV-34] 미래엔 오카리나 연주 자세

미래엔은 [그림 IV-34]와 함께 사진과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아 소리 내는 법과 서밍(Thumbing) 설명만 제시되어 연주할 때 몸의 자세나 연주 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에 [그림 IV-33]과 같이 몸의 자세와 연주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박영사에서는 [그림 IV-35]와 같이 연주할 때 몸의 자세나 입 모양, 손가락으로 악기 구멍을 막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5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그림 IV-35] (주)박영사 오카리나 연주 자세

(쥬아침나라는 [그림 IV-36]과 같이 낮은음과 높은음으로 나눠 소리 내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 (쥬박영사와 비교했을 때 악기의 방향이나 몸의 자세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연주 자세 및 방법

- 취구를 입술로 가볍게 물어 목에 힘을 주지 않고, 안정된 호흡으로 일정하게 소리 낸다.
- 손 전체에 힘을 풀고 손가락 끝의 지문이 있는 부분으로 구멍을 살짝 막는다.
- 낮은 소리는 부드럽게, 높은 소리는 조금 강하게 분다.
- 혀를 이용해 낮은음은 ‘두’, 높은음은 ‘투’로 발음하는 것처럼 바람을 불어 넣는다.



[그림 IV-36] (쥬아침나라 오카리나 연주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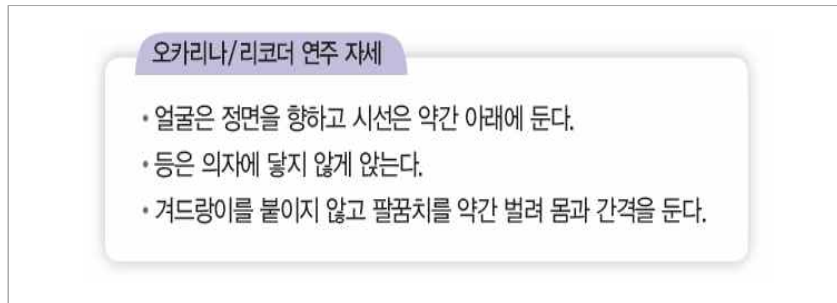
와이비엠에서는 [그림 IV-37]과 같이 7종 교과서 중 몸의 자세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설명하는데, 텅잉 주법을 어떻게 해야 소리 나는지, 악기 소리 낼 때 입 모양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연주 자세

양팔의 힘을 빼고 팔꿈치를 너무 벌리거나 붙이지 않은 자세로 머리를 약간 숙여 취구를 입에 물고 악기를 잡는다.

[그림 IV-37] 와이비엠 오카리나 연주 자세

지학사는 [그림 IV-38]과 같이 연주할 때 몸의 자세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천재교과서에서는 [그림 IV-39]와 같이 취구를 무는 법과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손 모양에 대해 설명한다. 이처럼 오카리나를 연주할 때 올바르게 연주 자세를 익힐 수 있도록 연주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38] 지학사 오카리나 연주 자세







[그림 IV-39] 천재교과서 오카리나 연주 자세

오카리나 연주법은 다락원, 미래엔, (주)박영사, (주)아침나라, 천재교과서로 7

중 교과서 중 5종 교과서에서만 수록되었다. 다락원은 연주법과 연주 자세가 똑같이 제시되었는데, 복식 호흡을 활용한 텅잉 주법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미래엔은 오카리나 연주법에서 텅잉 주법만 간결하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곡에서는 다양한 주법(레가토, 스타카토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박영사에서는 연주할 때 몸의 자세나 입 모양, 손가락으로 악기 구멍을 막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5가지로 나눠 설명하는데, 추가적으로 악기 소리 내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주법(레가토, 스타카토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주)아침나라에서는 낮은음과 높은음으로 나눠 소리 내는 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소리 내는 법 이외에 다양한 주법이나 텅잉 주법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천재교과서에서는 [그림 IV-40]과 같이 연주할 때 활용하는 주법으로 논 레가토(non legato), 레가토(legato), 포르타토(portato), 스타카토(staccato)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처럼 다른 교과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법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 텅잉(tonguing) 연주법

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혀끝을 윗니 뒤쪽에 두고 혀를 앞으로 가볍게 밀면서 소리를 낸다. 낮은 소리는 부드럽게 불고, 높은 소리는 강하게 분다. ❖ 154쪽 부록 운지법(리코더·오카리나)

<p>● 논 레가토(non legato)</p>  <p>두 두 두 두 두</p>	<p>● 레가토(legato)</p>  <p>두 우 우 웃 두</p>
<p>● 포르타토(portato)</p>  <p>두웃 두웃 두웃 두웃 두웃</p>	<p>● 스타카토(staccato)</p>  <p>툃툃 툃툃 툃툃 툃툃 툃툃</p>

[그림 IV-40] 천재교과서 오카리나 연주법

마. 드럼 연주법

드럼이 수록된 교과서는 비상교육,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 교과서까지 5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다음 <표 IV-9>는 이들 5종에 제시된 드럼 연주 자세와 연주법을 분석한 것이다.

<표 IV-9> 드럼 연주 자세와 연주법

구분	비상교육	와이비엠	음악과 생활	지학사	천재
연주 자세	○	X	X	○	○
연주법	○	○	X	○	X

먼저, 드럼 악기가 실린 교과서는 5종으로 비상교육, 와이비엠, (주)음악과 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어있다. 드럼 연주 자세와 관련하여 나타난 교과서는 음악과 생활과 와이비엠을 제외한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 교과서에 설명되어있다.



[그림 IV-41] 비상교육 드럼 연주 자세

비상교육에서는 [그림 IV-41]과 같이 연주 자세 및 리듬 연습으로 연주법과 연주 자세가 같이 기재되었으며, 스틱 잡는 법, 스틱 연주법, 발 모양 3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지학사는 [그림 IV-42]와 같이 몸의 자세와 악기 연주를 위해 의자 높이를 조절해야하는 점, 스틱 잡는 법&페달 밟는 법이 제시되어 연주 자세가 나온 교과서 중 가장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그림 IV-42] 지학사 드럼 연주 자세

천재교과서는 [그림 IV-43]과 같이 연주 자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사진으로만 제시되었다. 드럼은 드럼 세트에서 스틱, 페달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주 자세에서도 이와 관련한 설명을 상세하게 수록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43] 천재교과서 드럼 연주 자세

● 4* 비트 리듬 연습하기 ● 8비트 리듬 연습하기

* 비트(beat) 한 마디 안에 박을 나누어 주는 기본 박의 수에 따라서 4, 8, 16비트로 나뉨

[그림 IV-44] 비상교육 드럼 연주법

드럼 연주법은 음악과 생활을 제외한 비상교육, 와이비엠, 지학사, 천재교과서에서만 수록되어있는데, 비상교육에서는 [그림 IV-44]와 같이 스틱 연주법, 발 모양 연주법으로 특히, 발 모양 연주법은 힐 업 주법과 힐 다운 주법으로 나뉘 기재하였다. 그리고 [그림 IV-44]와 같이 4비트 리듬과 8비트 리듬 연주법이 나와 있어 구별하여 드럼을 연습할 수 있다. 와이비엠은 스틱 연주법, 싱글 스트로크 주법으로 스틱 연주법은 레귤러 그립과 매치드 그립으로 나뉘지며, [그림 IV-45]와 같이 싱글 스트로크 주법은 8비트와 16비트로 나뉘서 연주법을 제시하였다.

2 드럼 세트를 싱글 스트로크 주법으로 연주해 보자.

싱글 스트로크

8비트

16비트

* 오른손: R, 왼손: L

[그림 IV-45] 와이비엠 드럼 연주법

1 드럼의 기본 연주법을 익혀 보자.

싱글 스트로크 연습

①

②

③

④

더블 스트로크 연습

①

②

*** 스트로크**

채로 치는 주법을 뜻한다.

- 싱글 스트로크 (single stroke): 한 손에 한 번씩 번갈아 치는 주법
- 더블 스트로크 (double stroke): 헤드의 반발력을 이용하여 한 손에 두 번씩 치는 주법

[그림 IV-46] 지학사 드럼 연주법

지학사는 드럼의 기본 연주법으로 [그림 IV-46]과 같이 싱글 스트로크 주법과 더블 스트로크 주법을 제시하였는데, 싱글 스트로크 주법은 4분음표, 8분음표, 셋잇단음표, 16분음표로 나타났고 더블 스트로크 연습은 8분음표, 16분음표로 제시되었다. 천재교과서는 하이햇 심벌, 스네어 드럼, 페달만 연주법을 설명하였는데, 드럼은 스틱과 페달을 이용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스틱 연주법이나 발 모양 연주법 또는 싱글 스트로크 연습, 더블 스트로크 연습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바. 소금 연주법

소금이 수록된 교과서는 (주)금성출판사, 다락원, 미래엔,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 9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다음 <표 IV-10>은 이들 9종에 제시된 소금 연주법을 분석한 것이다.

<표 IV-10> 소금 연주 자세와 연주법

구분	금성	다락원	미래엔	비상교육	아침나라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
연주 자세	○	○	○	○	○	○	○	○	○
연주법	X	X	○	○	○	X	○	○	○

소금 연주 자세에 대해 제시된 교과서는 9종 교과서에 모두 제시되었으며, (주)금성출판사는 [그림 IV-47]과 같이 소금을 연주할 때 몸의 자세와 입술 모양, 머리 각도, 고개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숨을 들이쉴 때 복식 호흡을 활용하여 입김을 불어넣는 법도 기재되었다.



[그림 IV-47] (주)금성출판사 소금 연주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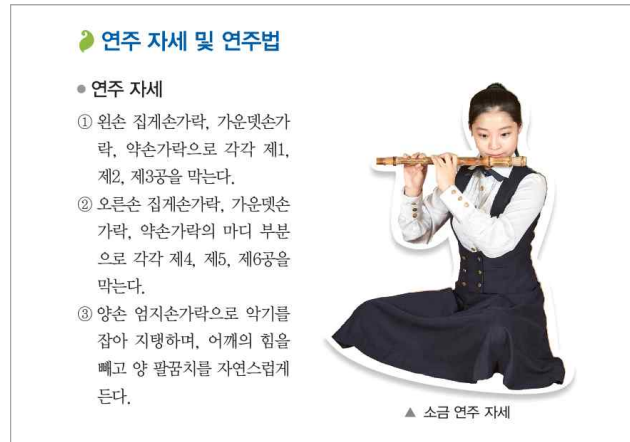
[그림 IV-48] 다락원 소금 연주 자세

다락원에서는 [그림 IV-48]과 같이 연주 자세에 대해 입술 모양과 몸의 자세 및 고개로 제시하였는데, 보다 원활하게 악기를 운지 할 수 있도록 지공법과 관련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미래엔은 [그림 IV-49]와 같이 연주할 때 손가락 지공법 및 고개 각도, 시선, 몸의 자세를 중점적으로 하여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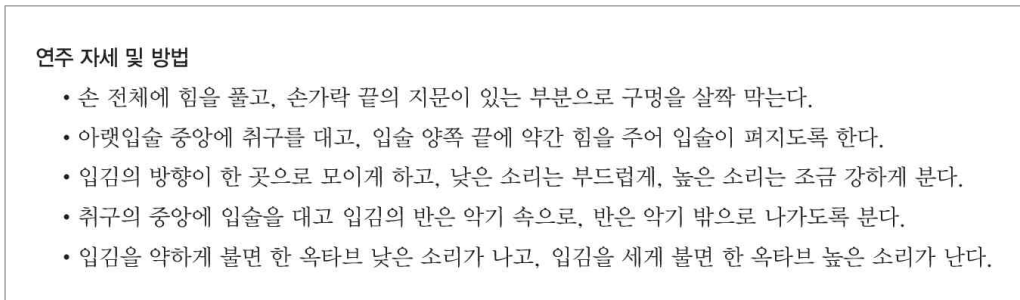
[그림 IV-49] 미래엔 소금 연주 자세

비상교육에서는 [그림 IV-50]과 같이 다른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연주 시에 입술 모양이나 고개 각도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손가락 지공법과 몸의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소금은 입술 모양에 따라 소리 낼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50] 비상교육 소금 연주 자세

(주)아침나라는 [그림 IV-51]과 같이 연주 자세 및 방법으로 손가락 지공법 및 입술 모양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데, 미래엔 [그림 IV-49]에 제시된 것처럼 고개 각도나 몸의 자세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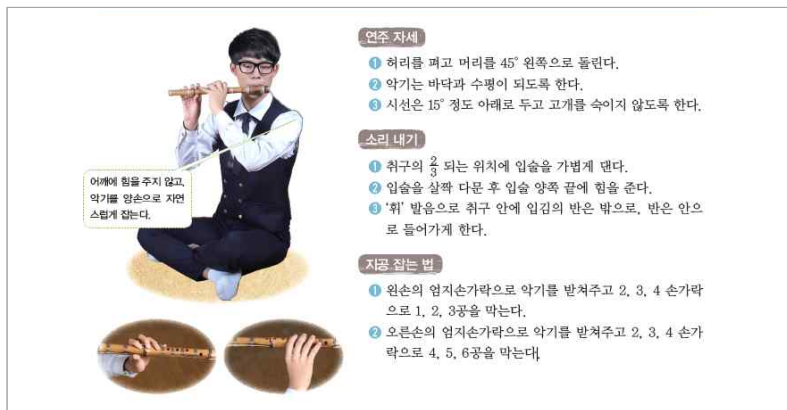
[그림 IV-51] (주)아침나라 소금 연주 자세

와이비엠은 [그림 IV-52]와 같이 연주할 때 입술 모양, 손가락 지공법, 고개, 시선, 몸의 자세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지공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에 [그림 IV-50]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공법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52] 와이비엠 소금 연주 자세

(주)음악과생활에서는 [그림 IV-53]과 같이 연주 자세, 소리 내기, 지공 잡는 법으로 나뉘어져 있어 한 눈에 연주 자세 및 연주법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림 IV-53] (주)음악과생활 소금 연주 자세

소금 연주 자세가 수록된 9종 교과서 중 가장 이상적인 교과서로 볼 수 있다.



[그림 IV-54] 지학사 소금 연주 자세

지학사는 [그림 IV-54]와 같이 연주 자세에 대해 오른손 모양 왼손 모양으로 나눠서 제시하며, 몸의 자세와 손가락 지공법 및 입술 모양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천재 교과서는 연주할 때 소금 잡는 법, 오른손 왼손의 지공법, 몸의 자세, 입술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몸의 자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었지만, 지공 잡는 법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소금은 입술 모양에 따라 소리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주할 때 입술 모양, 몸의 자세 및 손가락 지공법에 대해 기재할 필요가 있다.

소금 연주법은 미래엔,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에서만 수록되었다. 미래엔에서는 연주법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저취, 역취로 나누어 간단하게 설명하였는데, 저취, 역취를 제외한 소리 내는 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여 이에 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55] 비상교육 소금 연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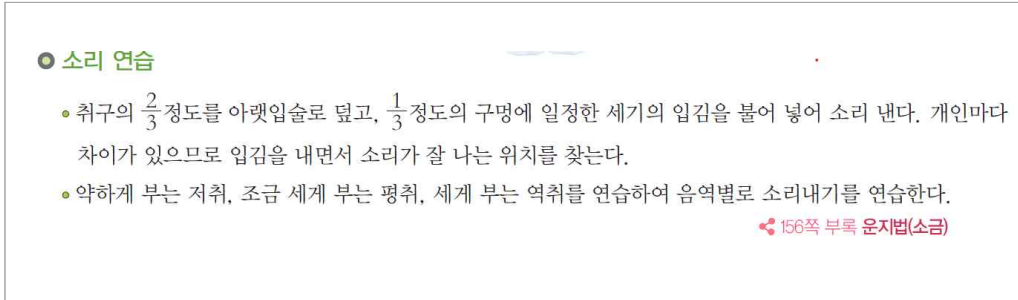
비상교육은 [그림 IV-55]와 같이 연주할 때 소리 내는 법에 초점을 두어 입술 모양 및 부는 각도 조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주)아침나라는 앞서 제시된 [그림 IV-51]과 같이 연주 자세와 함께 연주법이 제시되었는데, 저취, 역취와 소리 내는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주)음악과생활은 앞서 제시된 [그림 IV-53]과 같이 소리 내기 및 지공 잡는 법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다.

연주 방법

- 저취(낮은음)는 안정된 호흡으로 입김을 약하게 불어 넣어야 한다.
- 평취(중간 음)는 소금의 음색 특징이 잘 나타나는 음역으로, 저취보다는 센 입김으로 불어야 한다.
- 역취(높은음)는 배에 힘을 주어 입김을 세게 불어야 한다.

[그림 IV-56] 지학사 소금 연주법

지학사는 [그림 IV-56]과 같이 저취, 평취, 역취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였는데, 다른 교과서와 소금 연주법을 비교했을 때 3가지 주법의 명칭과 설명이 명확하게 잘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다.



[그림 IV-57] 천재교과서 소금 연주법

천재교과서에서는 [그림 IV-57]과 같이 소리 내는 법과 관련하여 입술 모양과 저취, 평취, 역취를 설명하였다. 전체적으로 소금은 악기 특성상 다른 악기에 비해 소리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공통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

사. 가야금 연주법

가야금이 수록된 교과서는 (주)금성출판사, 다락원, (주)박영사, 비상교육,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인 8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다음 <표 IV-11>은 이들 8종에 제시된 가야금 연주법을 분석한 것이다.

<표 IV-11> 가야금 연주 자세와 연주법

구분	금성	다락원	박영사	비상교육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
----	----	-----	-----	------	------	-------	-----	----

연주 자세	○	○	○	○	○	○	○	○
연주법	○	○	○	○	○	○	○	○

연주 자세는 미래엔과 (주)아침나라를 제외한 8종 교과서에 모두 제시되었으며, (주)금성출판사는 [그림 IV-58]과 같이 악기의 좌단 위치, 시선, 왼발, 악기의 현침을 중점적으로 하여 3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다락원은 시선, 오른발 및 왼발에 대해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그림 IV-58] (주)금성출판사와 다락원 가야금 연주 자세

다락원과 (주)금성출판사와 비교했을 때 허리를 펴서 시선을 살짝 왼쪽으로 틀어 왼손을 본다는 것과 오른손, 왼손 위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에 가야금에 있어 오른손, 왼손 위치를 정확하게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59] (주)박영사 가야금 연주 자세

(주)박영사에서는 [그림 IV-59]와 같이 연주 자세를 4가지 순서로 나누어 오른발, 좌단 위치, 몸의 자세, 왼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3종의 교과서는 내용 면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다.



[그림 IV-60] 비상교육 가야금 연주 자세

비상교육은 [그림 IV-60]과 같이 연주 자세가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고 사진으로 제시되었는데, 가야금을 보다 더 원활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연주할 때 몸의 자세나 손, 좌단 위치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61] 와이비엠 가야금 연주 자세

와이비엠에서는 [그림 IV-61]과 같이 8종 교과서 중에 몸의 자세와 손가락 위치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가야금 특성상 연주할 때 자세 잡는 것부터 손가락 위치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에서도 이처럼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62] (주)음악과생활 가야금 연주 자세

(주)음악과생활은 [그림 IV-62]와 같이 연주 자세에 대해 왼쪽 다리 및 오른

쪽 발 위치, 악기 위치에 대해 설명하는데, 몸의 자세나 손가락 위치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 이에 원활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몸의 자세 및 손가락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지학사에서는 [그림 IV-63]과 같이 몸의 자세, 악기 위치, 왼발 및 오른발 위치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연주 자세와 악기 구조를 함께 제시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연주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V-63] 지학사 가야금 연주 자세

천재교과서는 [그림 IV-64]와 같이 연주 자세와 악기 구조를 함께 제시하였는데, 연주 자세에 대한 설명이 따로 제시되어있지는 않고 사진으로만 제시되어있다. 가야금 악기는 사진으로만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진뿐만 아니라 와이비엠처럼 자세와 손가락 위치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64] 천재교과서 가야금 연주 자세

2 산조 가야금 연주법을 알아보고, 다음 연습곡을 연주해 보자.

오른손 주법

▲ 검지로 뜯기

- 1: 엄지로 뜯는다.
- 2: 검지로 뜯는다.
- 3: 중지로 뜯는다.
- 3-1: 중지와 엄지로 줄을 뜯는다.

검지로 튕기기

▲ 검지로 튕기기

- : 검지로 튕긴다.
- 8: 중지와 검지로 연이어 튕긴다.

왼손 주법

←: 왼손으로 굽게 떠는 농현을 한다.

[그림 IV-65] ㈜금성출판사 가야금 연주법

가야금 연주법은 8종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었는데, ㈜금성출판사는 [그림 IV-65]와 같이 오른손 주법과 왼손 주법으로 나눠서 설명하였으며, 오른손 주법으로는 검지로 뜯기와 튕기기, 왼손 주법으로는 굽게 떠는 농현을 제시하였다.

2 오른손과 왼손의 주법을 익혀보자.

• 오른손

2 ↓	두 번째 손가락으로 뜯는다. ※ 손가락 번호는 2번 또는 표기 하지 않는다		○ ↓	두 번째 손가락으로 튕긴다.	
1 ↓	첫 번째 손가락으로 뜯는다.		3	세 번째 손가락으로 뜯는다.	
2-1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밀고 첫 번째 손가락으로 뜯으며 뜯는다.		1-3	첫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연속해서 뜯는다.	
			3-1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밀고 첫 번째 손가락으로 뜯으며 짚는다.	

• 왼손

	왼손으로 줄을 깊게 눌러 흔든다.		줄을 살짝 눌러 왼손보다 반음 정도 높였다가 제 음으로 놓는다.
--	--------------------	--	-------------------------------------

[그림 IV-66] 다락원 가야금 연주법

다락원은 [그림 IV-66]과 같이 오른손과 왼손의 주법으로 나뉘어져 각 기보법과 설명도 함께 기재되어있다. 이처럼 기보법도 함께 기재되면 실질적으로 연주할 때 악보에서 기보한 것을 보고 주법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연주법에 기보법도 같이 기재할 필요가 있다.

활동 2 산조 가야금의 연주 방법과 조율법을 살펴보자.

| 오른손 연주 방법 | | 줄 고르기 |

손가락 번호

행기기 부호: 0 8
2 3

뜯기 부호: 1 2 3 4 5

1 2 3 4 5 손가락

손날

구음: 청 흥 동 당 동 정 망 지 영 청 풍 쟁

줄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출처: 주광식 외,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그림 IV-67] (주)박영사 가야금 연주법







(주)박영사에서는 [그림 IV-67]과 같이 연주법으로 오른손 연주 방법만 사진

으로 제시되어 연주법을 익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다락원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기보법과 함께 오른손, 왼손 주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연주법

- ① 좌단을 오른쪽 무릎 위에 놓는다.
- ② 오른손으로 줄을 뜯거나 튕기면서 연주한다.
- ③ 왼손으로는 줄을 흔들어서 떨기, 밀어 올리기, 흘러 내리기, 꺾기, 구르기 등의 표현을 한다.
- ④ 필요할 때마다 안쪽을 옮겨서 음을 맞춘다.

손가락 번호

원손		오른손	
	음을 떨어 준다.		 또는 
	제 음보다 약간 높은 음으로 밀어 올린다.		
	제 음보다 약간 낮은 음으로 흘러 내린다.		
	음을 약간 높였다가 제 음을 낸다(꺾는 음).	1: 엄지손가락 2: 집게손가락 3: 가운데손가락 4: 약손가락 5: 새끼손가락	
	음을 굴린다.		



가야금 연주 자세 ▶

[그림 IV-68] 비상교육 가야금 연주법

비상교육은 [그림 IV-68]과 같이 좌단 위치, 오른손, 왼손 연주법, 안쪽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각 손가락번호 및 기보법도 나와 있어 한 눈에 연주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왼손 주법

C_{vv}



줄을 깊게 눌러 흔든다.

—



줄을 얇게 눌러 흔든다.

[그림 IV-69] 와이비엠 가야금 왼손 주법

연주 방법

▶ 오른손 연주법

부호	연주법	손 모양	부호	연주법	손 모양	오른손 손가락 번호
	집게손가락으로 뜯는 연습			집게손가락으로 밀고 엄지손가락으로 잡는 연습과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거꾸로 잡는 연습		 1: 엄지손가락(엄지) 2: 집게손가락(검지) 3: 가운데손가락(중지) 4: 약손가락(약지) 5: 새끼손가락(소지)
	집게손가락으로 통기는 연습			가운뎃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잡는 연습(옥타브 연주)		
	엄지손가락으로 뜯는 연습			가운뎃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동시에 뜯는 연습		

▶ 왼손 연주법

왼손으로 줄을 떨거나 눌러서 소리의 변화를 주는 기법을 농현이라 한다.

부호	연주법	부호	연주법	손 모양
	굵게 떠는 표		본음보다 반음 높였다 다시 본음으로 돌아오는 꺾는 표	
	가늘게 떠는 표		본음보다 한 줄 밑에서 눌러 내는 표	

[그림 IV-71] 지학사 가야금 연주법

지학사는 [그림 IV-71]과 같이 오른손, 왼손 연주법으로 나뉘어 부호, 연주법, 손 모양, 오른손 손가락 번호를 기재하였다. 왼손 연주법이 비상교육에 비해 다양하지는 않지만, 손 모양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이에 따라 원활하게 연주할 수 있다. 천재교과서에서는 [그림 IV-72]와 같이 오른손, 왼손 연주법이 간단하게 설명되어있는데, 이에 지학사나 비상교육처럼 더 많은 연주법과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연주법

오른손 연주법	왼손 연주법
 2: 검지로 뜯는다	 줄을 깊게 눌러 떨어 준다. 줄을 눌러 꺾는음을 표현한다.
 1: 엄지로 뜯는다	
 3: 검지로 뺨긴다	

[그림 IV-72] 천재교과서 가야금 연주법

아. 단소 연주법

단소가 수록된 교과서는 다락원, 미래엔, (주)박영사,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주)음악과생활, 천재교과서인 7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다음 <표 IV-12>는 이들 7종에 제시된 단소 연주법을 분석한 것이다.

<표 IV-12> 단소 연주 자세와 연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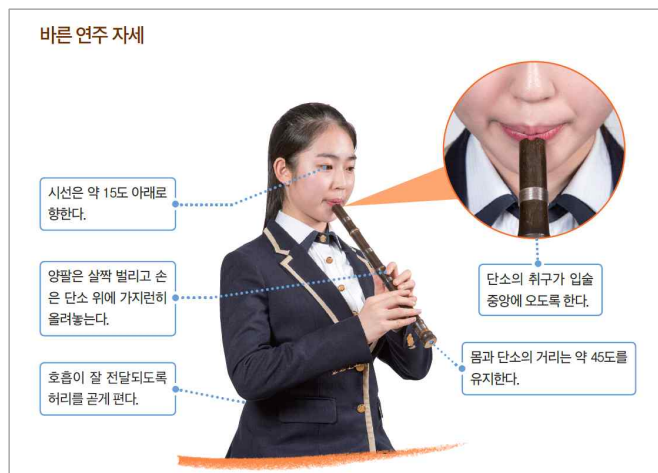
구분	다락원	미래엔	박영사	비상교육	아침나라	음악과생활	천재
연주 자세	○	○	X	○	○	○	○
연주법	X	○	X	○	○	○	○

연주 자세가 나온 교과서는 7종 중 (주)박영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에 모두 제시되었으며, 다락원은 [그림 IV-73]과 같이 4가지로 나눠 설명하는데, 취구 위치, 몸의 자세 및 단소의 각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그림 IV-73] 다락원 단소 연주 자세

미래엔에서는 [그림 IV-74]와 같이 취구 위치, 몸의 자세 및 각도, 시선으로 제시되었으며, 앞서 나왔던 다락원과 비교 했을 때 취구 위치, 양팔 벌리고 손은 단소 위에 올려 놓는 것, 호흡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 몸과 단소의 거리는 약 45도를 유지하는 내용적인 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지공법이나 연주 기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74] 미래엔 단소 연주 자세

비상교육은 [그림 IV-75]와 같이 입 모양, 몸의 각도에 중점을 두어 기재하였는데 몸의 자세 및 시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도록 [그림 IV-74]처럼 몸의 자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75] 비상교육 단소 연주 자세

(주)아침나라는 [그림 IV-76]과 같이 앞서 나왔던 소금과 똑같이 연주 자세 및 방법으로 손가락 지공법 및 입술 모양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데, 시선 각도나 몸의 자세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연주 자세 및 방법

- 손 전체에 힘을 풀고, 손가락 끝의 지문이 있는 부분으로 구멍을 살짝 막는다.
- 아랫입술 중앙에 취구를 대고, 입술 양쪽 끝에 약간 힘을 주어 입술이 퍼지도록 한다.
- 입김의 방향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낮은 소리는 부드럽게, 높은 소리는 조금 강하게 분다.
- 취구의 중앙에 입술을 대고 입김의 반은 악기 속으로, 반은 악기 밖으로 나가도록 분다.
- 입김을 약하게 불면 한 옥타브 낮은 소리가 나고, 입김을 세게 불면 한 옥타브 높은 소리가 난다.

[그림 IV-76] (주)아침나라 단소 연주 자세

(주)음악과생활은 [그림 IV-77]과 같이 몸의 각도 및 시선, 고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데, 다른 교과서에 비해 설명이 막연하다. 이에 연주할 때 몸의 자세나 취구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77] (주)음악과생활 단소 연주 자세

천재교과서에서는 [그림 IV-78]과 같이 단소 잡는 법 및 몸의 자세, 취구 위치, 몸의 각도에 대해 제시하는데, 연주 자세가 나온 6종 교과서 중 가장 세세하게 설명하였다. 앞서 살펴봤던 소금과 마찬가지로 악기 특성상 다른 악기에 비해 소리 내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연주할 때 몸의 자세와 소리 내는 부분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78] 천재교과서 단소 연주 자세

단소 연주법은 다락원, (주)박영사를 제외한 5종 교과서에서 수록되었다. 미래엔은 연주법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단소 소리 내는 법을 세 가지로 연주할 때 미소를 지은 듯한 입술 모양, 입김, 소리가 잘 나지 않을 때 취구의 위치를 바꾸는 법에 대해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소는 소리 내는 법만큼 몸의 자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간단하게 제시되는 것이 아닌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p>● 연주법</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제4공까지 모두 막은 모습 ▲ 지공을 모두 연 모습</p> <p>① 어깨와 팔의 힘을 빼고, 양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들며, 제4공은 오른손 가운데손가락으로 막는다. ② 지공을 다 열었을 때 지공을 막지 않는 손가락으로 단소를 받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같은 음 중복의 연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혀 치기 반복되는 음을 혀로 '루'나 '투'발음으로 입천장을 살짝 친다. • 손 치기 반복되는 음에서 그 음의 위 음을 재빨리 떼었다 막아 준다. • 숨 끊기 반복되는 음이 나오면 숨을 재빨리 끊고 내어 부드럽고 빠르게 분다.
비상교육	(주)음악과생활

[그림 IV-79] 비상교육과 (주)음악과생활 단소 연주법

비상교육은 [그림 IV-79]와 같이 지공을 모두 막은 모습과 모두 연 모습을 비교하여 몸의 자세와 지공법을 설명하였다. (주)아침나라에서는 앞서 나왔던 [그림 IV-76]과 같이 연주 자세와 방법으로 지공법, 입술 모양, 입김에 중점을 두어 제시한다. (주)음악과생활은 [그림 IV-77]과 같이 소리 내기 부분에 연주할 때 입술 모양, 입김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그림 IV-79]와 같이 연습하기 부분에서 같은 음 중복의 연주법을 혀 치기, 손 치기, 숨 끊기로 제시하였다. 비상교육을 (주)음악과생활을 비교했을 때 지공법으로 단소 연주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주)음악과생활처럼 소리 내는 법과 연주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천재교과서는 일정한 세기의 입김, ‘태(汰)’ 운지로 소리내기 하는 법, 평취 및 역취 연습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평취 및 역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악기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평취 및 역취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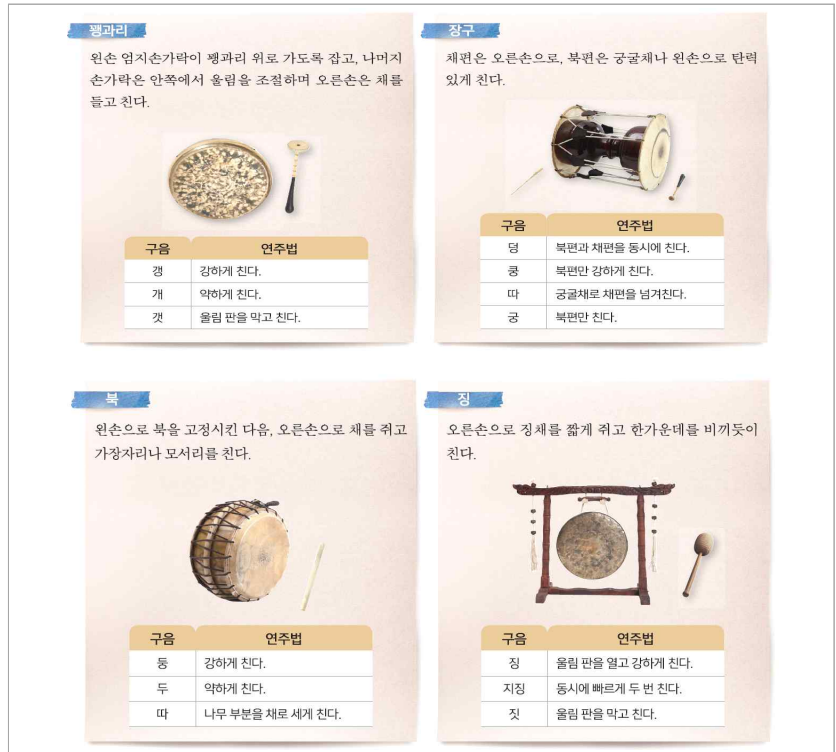
자. 사물놀이 연주법

사물놀이가 수록된 교과서는 (주)금성출판사, 다락원, (주)아침나라, (주)음악과 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인 6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다음 <표 IV-13>은 이들 6종에 제시된 사물놀이 연주법을 분석한 것이다.

<표 IV-13> 사물놀이 연주 자세와 연주법

구분	금성	다락원	아침나라	음악과 생활	지학사	천재
연주 자세	○	○	X	○	○	○
연주법	○	○	○	○	○	○

연주 자세에 대해 (주)아침나라를 제외한 5종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었으며, 다른 악기와 달리 연주 자세와 연주법이 같이 제시되었다. (주)금성출판사는 [그림 IV-80]과 같이 팽과리는 손가락, 장구 및 북은 오른손과 왼손, 징은 오른손 연주법을 중점적으로 하여 설명하였다. 다락원도 내용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악기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주)금성출판사와 다락원을 비교했을 때 금성출판사는 세기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다락원은 악기 도구로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제시하였다.



[그림 IV-80] (주)금성출판사 사물놀이 연주 자세 및 연주법

하지만, (주)금성출판사에 비해 다락원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이에 (주)금성출판사에서 연주 자세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아침나라는 사물 악기의 연주법에 대해 악기 도구로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설명만 나왔으며, (주)음악과생활에서는 (주)아침나라와 내용적인 면에서 세기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 점이 비슷하지만 악보 기호가 제시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음악과생활은 [그림 IV-81]과 같이 연주 사진만 제시되어있고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물놀이에 있어 연주 자세는 각 악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락원처럼 연주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81] (주)음악과생활 사물놀이 연주 자세 및 연주법

지학사는 다락원과 비슷하게 북편&채편 중 어디를 치는지, 울림판을 여는지 막는지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설명하였고 징에서만 강하게 친다고 다르게 기술하였다. 천재교과서에서는 연주 자세에 대해서는 기재되어있지 않고 지학사, 다락원과 비슷하게 연주법을 설명하였는데, [그림 IV-82]와 같이 부호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사물놀이는 연주법이 비슷하게 설명되어있는데, 부호가 나와 있지 않은 교과서에만 부호만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호	구음	연주법
○	쟁, 갠	채로 강하게 친다.
○	개, 지	채로 약하게 친다.
●	갯	울림판을 막고 채로 친다.

평과리

부호	구음	연주법
⊙	뎡	궁굴채로 북편을, 채로 채편을 같이 친다.
⊕	더	뎡(⊙)을 약하게 친다.
○	콩	궁굴채로 북편을 친다.
●	궁	궁굴채로 채편을 친다.
	따	채로 채편을 친다.

장구

부호	구음	연주법
○	둥	채로 강하게 친다.
○	두	채로 약하게 친다.
	따	채로 북의 나무 부분을 세게 친다.

북

부호	구음	연주법
○	징	채로 친다.

징

[그림 IV-82] 천재교과서 사물놀이 연주 자세 및 연주법

차. 장구 연주법

장구가 수록된 교과서는 미래엔, (주)박영사, 비상교육, 지학사로 4종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다. 다음 <표 IV-14>는 이들 4종에 제시된 장구 연주법을 분석한 것이다.

<표 IV-14> 장구 연주 자세와 연주법

구분	미래엔	박영사	비상교육	지학사
연주 자세	○	○	○	○

연주법	○	○	○	○
-----	---	---	---	---

연주 자세가 제시된 교과서는 4종 교과서에 모두 제시가 되었으며, 사물놀이와 동일하게 4종 교과서에 연주 자세와 연주법이 함께 제시되었다. 미래엔은 [그림 IV-83]과 같이 손 모양, 장구 위치, 채편의 변죽을 치는 법, 복판을 연주하는 법, 반주할 때 복편의 복판 연주하는 법을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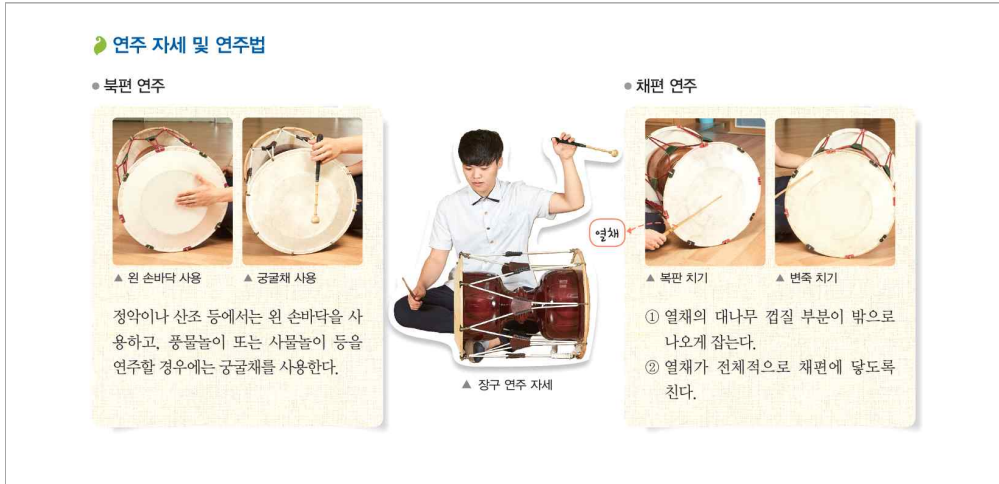


[그림 IV-83] 미래엔 장구 연주 자세 및 연주법



[그림 IV-84] (주)박영사 장구 연주 자세 및 연주법

(주박영사는 [그림 IV-84]와 같이 연주 자세로 열채와 궁글채 잡는 모습만 사진으로 제시되어있어 몸의 자세와 관련된 부연 설명이 추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주 방법은 덩, 궁, 덕만 제시되어 더 다양한 연주 부호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림 IV-85] 비상교육 장구 연주 자세 및 연주법

비상교육은 [그림 IV-85]와 같이 북편과 채편 연주로 나눠서 기재하였으며, 손 모양을 제시한 점에서는 미래엔과 같지만 북편 연주에서 정악이나 산조, 풍물놀이 또는 사물놀이 연주할 때 악기 도구를 각각 다르게 사용하며 북판과 변죽의 차이를 설명한 점에서는 다르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연주 자세 및 연주법을 제시하면 보다 더 원활하게 연주할 수 있다.



[그림 IV-86] 지학사 장구 연주 자세 및 연주법

지학사는 [그림 IV-86]과 같이 몸의 자세, 궁굴채 연주, 채편 연주, 왼손으로 궁굴채를 칠 때를 중점적으로 하여 4가지로 나눠 제시하였지만, 앞서 비상교육에 나왔던 것처럼 장구 악기 특성상 복판 쳤을 때와 변죽 쳤을 때 음색이 다르고 왼 손바닥 사용한 것과 궁굴채를 사용한 음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제시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올바르게 장구 특성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장구 연주 자세 및 연주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4. 악기 연주법 학습을 위한 제재곡

본 연구에서는 각 출판사에서 출간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악기 연주법 학습을 위한 제재곡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서양악기 연주법을 위한 제재곡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에서 기타 연주법을 수록한 출판사는 (주)금성출판사, 다락원, 미래엔, 비상교육,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이다. 각 출판사에서 기타 연주법을 위해 제시한 제재곡은 다음 <표 IV-15>와 같다.

<표 IV-15> 기타 제재곡

악기	곡명	출판사
기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블라디 오블라다>	금성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너의 의미>	미래엔
	<Falling Slowly>	비상교육
	<조개껍질 묶어> <나는 문제없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침나라
	<바람이 불어오는 곳> <내가>	와이비엠
	<You Are My Sunshine> <마법의 용 퍼프(Puff the Magic Dragon)>	음악과생활
	<모두가 천사라면>	지학사

	<조개껍질 묶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천재
--	----------------------------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에서 리코더 연주법을 수록한 출판사는 미래엔,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천재 교과서이다. 각 출판사에서 리코더 연주법을 위해 제시한 제재곡은 다음 <표 IV-16>과 같다.

<표 IV-16> 리코더 제재곡

악기	곡명	출판사
리코더	<Moon River> <딱따구리 폴카> <언제나 몇 번이라도 -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 ->	미래엔
	<캐리비안의 해적 중 He' s a Pirate>	비상교육
	<Moon River> <Hey Jude>	아침나라
	<미뉴에트>	와이비엠
	<꼬마 별> <미뉴에트>	음악과생활
	<운명과 연심> <샤콘느>	지학사
	<이웃집 토토로 엔딩> <You Raise Me Up>	천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에서 우쿨렐레 연주법을 수록한 출판사는 미래엔,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천재 교과서이다. 각 출판사에서 우쿨렐레 연주법을 위해 제시한 제재곡은 다음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우쿨렐레 제재곡

악기	곡명	출판사
우쿨렐레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블라디 오블라다>	금성
	<제주도 푸른 밤>	다락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너의 의미>	미래엔
	<제주도 푸른 밤>	박영사
	<조개껍질 묶어> <나는 문제없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침나라
	<모두가 천사라면>	지학사
	<조개껍질 묶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천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서 오카리나 연주법을 수록한 출판사는 다락원, 미래엔, (주)박영사, (주)아침나라, 천재교과서이다. 각 출판사에서 오카리나 연주법을 위해 제시한 제재곡은 다음 <표 IV-18>과 같다.

<표 IV-18> 오카리나 제재곡

악기	곡명	출판사
오카리나	<Over the Rainbow> <인생의 회전목마>	다락원
	<Moon River> <딱따구리 폴카> <언제나 몇 번이라도 -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 ->	미래엔
	<My Heart Will Go On -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	박영사

	<Moon River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O.S.T. 중에서> <Love Theme - 영화 “시네마 천국” 중에서 -> <Hey Jude>	아침나라
	<혜화동>	와이비엠
	<운명과 연심> <샤콘느>	지학사
	<할아버지 시계> <사랑의 인사> <이웃집 토토로 엔딩> <You Raise Me Up>	천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서 드럼 연주법을 수록한 출판사는 비상교육, 와이비엠, 지학사이다. 출판사에서 드럼 연주법을 위해 제시한 제재곡은 다음 <표 IV-19>과 같다.

<표 IV-19> 드럼 제재곡

악기	곡명	출판사
드럼	<Ob-la-di, Ob-la-da!> <학교 가는 길>	비상교육
	<네버 엔딩 스토리>	와이비엠
	<My Heart Will Go On -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	박영사
	<여행을 떠나요>	음악과생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영화 ‘월스’ 중 Falling Slowly>	지학사
	<나는 나비>	천재

나. 국악기 연주법을 위한 제재곡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서 소금 연주법을 수록한 출판사는 미래엔,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이다. 출판사에서 소금 연주법을 위해 제시한 제재곡은 다음 <표 IV-20>과 같다.

<표 IV-20> 소금 제재곡

악기	곡명	출판사
소금	〈새야 새야〉 〈오나라〉 〈홀로 아리랑〉	금성
	〈소리길〉	다락원
	〈닐리리야〉 〈너영 나영〉	미래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태평가〉	비상교육
	〈아리랑〉 〈도라지타령〉	아침나라
	〈마음속의 풍선〉	와이비엠
	〈소리길〉 〈이웃집 토토로 엔딩〉 〈아리랑〉 〈홀로 아리랑〉	음악과생활
	〈아리랑〉 〈홀로 아리랑〉	지학사
	〈소리길〉 〈아리랑〉 〈홀로 아리랑〉	천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서 가야금 연주법을 수록한 출판사는 (주)금성출판사, 다락원, (주)박영사, 비상교육, 와이비엠,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이다. 출판사에서 가야금 연주법을 위해 제시한 제재곡은 다음 <표 IV-21>과 같다.

<표 IV-21> 가야금 제재곡

악기	곡명	출판사
가야금	<천안 삼거리>	금성
	<아리랑>	다락원
	<아리랑>	박영사
	<아리랑> <풍년가>	비상교육
	<몽금포타령>	와이비엠
	<아리랑> <꽃이 피었네>	음악과생활
	<진도 아리랑>	지학사
	<아리랑>	천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서 단소 연주법을 수록한 출판사는 미래엔, 비상교육, 아침나라, 음악과생활, 천재교과서이다. 출판사에서 단소 연주법을 위해 제시한 제재곡은 다음 <표 IV-22>과 같다.

<표 IV-22> 단소 제재곡

악기	곡명	출판사
단소	<부용화>	다락원
	<아리랑 2중주> <“현악 영산회상” 중 ‘타령’ > <“천년만세” 중 ‘계면 가락 도드리’ >	미래엔

	<닐리리아> <한 오백 년> <계면 가락 도드리>	박영사
	<눈의 꽃>	비상교육
	<아리랑> <도라지타령>	아침나라
	<홀로 아리랑>	음악과생활
	<밀양 아리랑> <도라지타령> <참밀밀>	천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서 사물놀이(풍물) 연주법을 수록한 출판사는 (주)금성출판사, 다락원, (주)아침나라, (주)음악과생활, 지학사, 천재교과서이다. 출판사에서 사물놀이(풍물) 연주법을 위해 제시한 제재곡은 다음 <표 IV-23>과 같다.

<표 IV-23> 사물놀이(풍물) 제재곡

악기	곡명	출판사
사물놀이(풍물)	<인사굿> <양산도> <별달걸이>	금성
	<별달거리>	다락원
	<별달거리>	아침나라
	<인사굿> <영남가락>	음악과생활
	<인사굿> <별달거리>	지학사
	<인사굿> <“웃다리풍물” 중 짝쇠>	천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서 장구 연주법을 수록한 출판사는 미래엔, (주)박영사, 비상교육, 지학사이다. 출판사에서 장구 연주법을 위해 제시한 제재곡은 다음 <표 IV-24>와 같다.

<표 IV-24> 장구 제재곡

악기	곡명	출판사
장구	<한강수 타령> <민요 연곡>	미래엔
	<밀양 아리랑 3중주>	박영사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에 수록된 악기 연주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교과서에서 제시된 악기 종류는 서양악기와 국악기로 나뉘지며, 서양악기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악기는 기타, 국악기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악기는 소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주)금성출판사에서는 서양악기 부분에서 제일 적은 3종의 악기인, 건반악기, 기타, 우쿨렐레만 제시되어 다른 서양악기인 리코더, 오카리나, 드럼, 켈레, 카혼 등 악기가 더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금성출판사에서 국악기 부분에서도 3종의 악기 즉, 소금, 산조 가야금, 사물놀이만이 제시되었는데, 3종 악기 이외에 다른 국악기인 장구, 단소 등 더 다양한 악기가 수록되어 다양한 악기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학습하여 음악적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악기의 배열 순서의 측면에서 서양악기를 먼저 배열하고 이어서 국악기를 배열한 출판사는 다락원, (주)박영사, 비상교육, (주)아침나라, 와이비엠, 지학사, 천재교과서였다. 반면에 국악기를 먼저 배열하고 이어서 서양악기를 배열한 출판사는 (주)금성출판사와 미래엔이었다. 그리고 서양악기와 국악기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열한 출판사는 (주)음악과생활이었다. 또한, 악기가 발생하는 소리의 원리에 따른 분류, 즉, 몸 울림 악기, 막 울림 악기, 전자 울림 악기, 현 울림 악기, 관 울림 악기, 그리고 멀티미디어 음악 분류에 따라서도 출판사별로 배열 순서가 달랐다.

셋째,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에 수록된 주요 악기의 연주 자세와 연주법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주 자세와 연주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게 제시되거나 사진으로만 제시된 것이 문제점

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건반악기, 우쿨렐레, 오카리나, 가야금 악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진으로만 연주 자세가 제시된 교과서에서는 연주 자세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사진과 함께 추가적인 설명이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10종에 수록된 악기 연주법 학습을 위한 제재곡을 분석한 결과, 금성출판사는 7곡, 다락원은 5곡, 미래엔은 9곡, 박영사는 7곡, 비상교육은 6곡, 아침나라는 6곡, 와이비엠은 4곡, 음악과생활은 8곡, 지학사는 4곡, 천재교과서는 15곡으로 제재곡을 가장 많이 수록한 출판사는 천재교과서로 나타났으며, 독주곡 중심으로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기악 활동 비중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악곡이 더 많이 제시되어야 하며, 다양한 연주 형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5년 개정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기악 영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과서 개정과정에서 기악 학습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둘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음악 장르와 악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심미적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김미숙, 현경실, 민경훈, 장근주, 김영미, 조성기, 김지현, 조대현, 송주현, 박지현, 최윤경, 김지현(2015). **음악과 교재 연구(제2판)**. 서울: (주)학지사.
- 김세은(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 비교·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하슬(202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표현영역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경훈, 김신영, 김용희, 방금주, 승윤희, 양종모, 이연경, 임미경, 장기범, 조순이, 주대창, 현경실(2017). **음악교육학 총론(제3판)**. 서울: 학지사.
- 박유빈(2021). 악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기악 앙상블 수업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승희(202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화(2015).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기악영역 분석 및 기악 수업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혜진(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10종 기악영역 분석 및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효임, 장기범(2004). **초등기악교육론**. 서울: 화인.
- 차예송(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 기악 학습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예림(2016). 중.고등학교 교사 기악수업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과서>

- 강민선, 김형석, 최진형, 한태동, 김승연, 양은주, 김일영, 염동식, 조아영
(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와이비엠.
- 김광옥, 박준호, 김희경, 박수진, 이누리, 전미진(2018). **고등학교 음악**. 파주:
(주)아침나라.
- 김명식, 권혜근, 신윤균, 강선영, 안인경, 양보라(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천재교과서.
- 김용희, 현경실, 채은영, 김지현, 이세경(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금성
출판사.
- 양종모, 신현남, 독고현, 김한순, 장보운, 황은주, 송미애, 김수철, 전명찬
(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음악과생활.
- 장기범, 임원수, 박경화, 김주경, 홍종건, 조성기, 송무경, 이시욱, 김경태
(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미래엔.
- 조대현, 김영미, 최은아, 윤아영, 이정대, 이현정, 여선희(2018). **고등학교 음
악**. 파주: (주)다락원.
- 주광식, 신혜영, 이성은, 김가영(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박영사.
- 주대창, 성은정, 이복희, 이동희(2018). **고등학교 음악**. 서울: (주)비상교육.
- 황병숙, 정길선, 강세연, 박경준, 김혜진, 곽은순, 엄숙용(2018). **고등학교 음
악**. 서울: (주)지학사.

ABSTRACT

Analysis of instrument performance methods 10 Kinds of Highschool Music Textbook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Lim, Ha el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high school textbooks include basic instructional practices for students to learn to play an instrument effectively, so that teachers can provide effective instructio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10 instruments most frequently included in the instrumental music section of 10 high school textbooks.

The textbooks analyzed are 10 textbooks published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Kumsung Publishing, Darakwon, Mirae-n, Park Young-sa, Visang Education, Morning Country, YBM, Music and Life, Jihaksa, and Genius Textbook. First, I divided the instruments in the textbooks into Western and Korean instruments, and analyzed the types of instruments and the order of their arrangement. The performance methods of the instruments were categorized into western instruments, Korean

instruments, and digital media, and analyzed in terms of performance method, performance posture, and sanctioned songs.

First, among the Western instruments in the music textbooks, the guitar was the most frequently presented instrument, and the Korean instruments were found to be ‘sogeum’ . In particular, Kumsung Publishing was found that only three instruments, namely ‘keyboard instruments, guitar, and ukulele’ were presented, which were the fewest among the Western instruments, and more Western instruments such as ‘recorder, ocarina, drum, and jembe, cajon’ needed to be added. In addition, Kumsung Publishing, Ltd, found that only three of the Korean instruments, namely ‘sogeum, san-joe gayageum, and samulnori’ , were presented, and that more instruments should be included, such as the other Korean instruments, ‘janggu, danso’ , etc. Textbooks should allow students to fully experience and learn various instruments to broaden their musical experience.

Second, in terms of the order of arrangement of instruments, the publishers who arranged Western instruments first and then Korean instruments were Darakwon, Park Young-sa, Visang Education, Morning Country, YBM, Jihaksa, and Genius Textbook. On the other hand, the publishers who arranged Korean musical instruments first and then Western musical instruments were Kumsung Publishing and Mirae-n. And the publisher that arranged Western and Korean instruments together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them was Music and Life. The order of arrangement was also different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instrumen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sound they produce, i.e,

‘idiophone, membranophone,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 chordophones, pipe sound musical instrument’ and the classification of multimedia music.

Third, I found that most of the textbooks lacked explanations of playing postures and methods throughout the textbook, or were presented only in pictures. In particular, the ‘keyboard instruments, ukulele, ocarina, gayageum’ instruments need sufficient explanations. Textbooks with only pictures of playing positions need to be accompanied by additional explanations.

Finally, after analyzing musical pieces for learning how to play musical instruments, it was found that Kumsung Publishing has 7 songs, Darakwon has 5 songs, Mirae-n has 9 songs, Park Young-sa has 7 songs, Visang Education has 6 songs, Morning Country has 6 songs, YBM has 4 songs, Music and Life has 8 songs, Jihaksa has 4 songs, and Genius Textbook has 15 songs. The publisher with the most musical pieces was Genius Textbook, but I could see that they were presented mainly as solo song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instrumental music activities in schools, present more musical pieces, and revise textbooks so that students can learn various performance form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nstrumental music section of the 2015 revised high school music textbooks, and that future textbook revisions will be supplemented with more emphasis on instrumental learning activities. This will help students to have an aesthetic experience through music and to understand various music genres and instrumental music.